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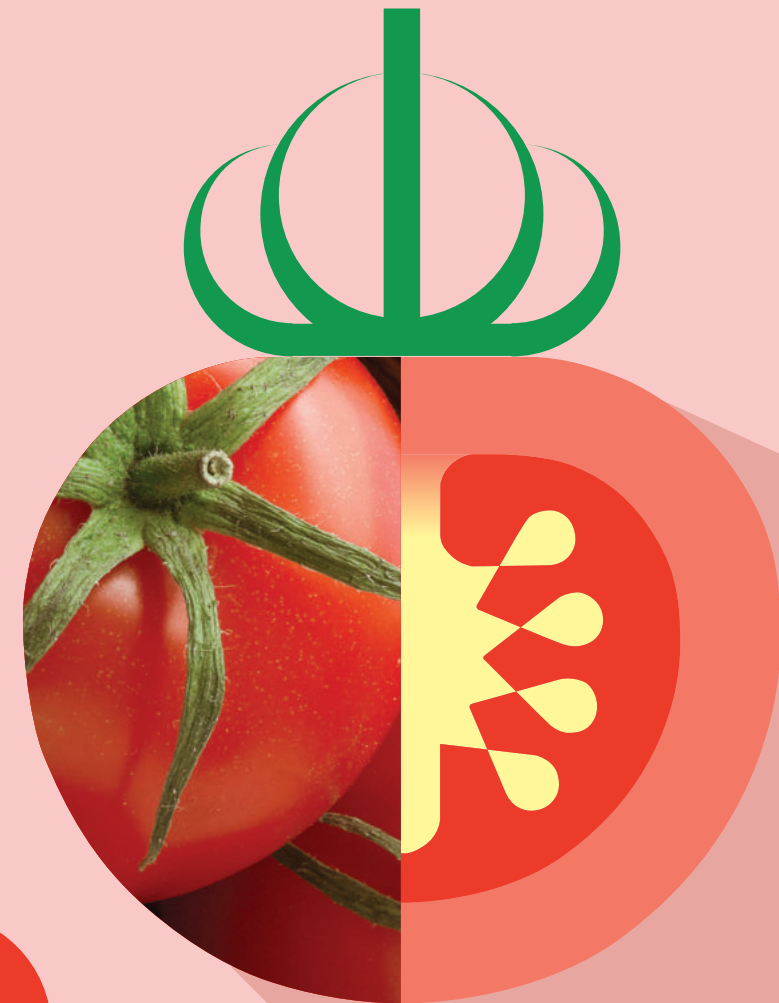
Vol. 58

2022. may+jun
www.jares.go.kr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자원경영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우)58213 TEL. 061. 330. 2597



청년농업인이
미래를
꿈꾸는 곳,
전라남도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2014년 창간된 농업전문 매거진입니다.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김남균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편집기획 김병삼 정우철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0000-000450-07
기획·제작 방형식디자인 02-2082-6388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전남농업 E-Book



전남농촌교육농장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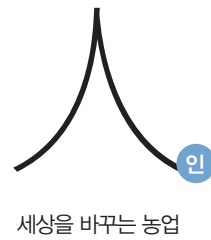
청년농업인은 '어렵다', '힘들다'는 농업이 처한 실정 앞에서도, 농업의 큰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농업과 함께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전보다 농작업이 기계화, 디지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구 감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의 대안은 결국 청년 농업인 뿐이고, 그들이 농업·농촌의 희망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농업기반이 악화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전라남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청년이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앞장서 책임지겠습니다.

CONTENTS



체질을 바꾸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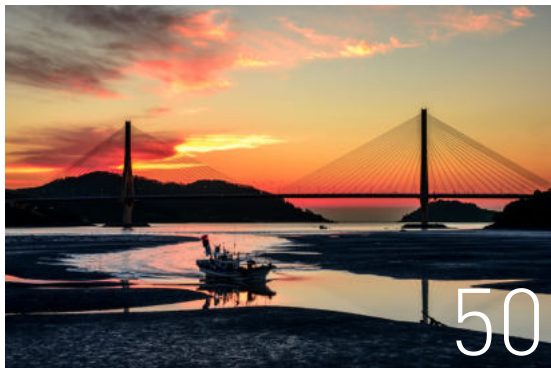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농업



삶을 바꾸는 농업

체인지 — 體人智 — CHANGE



08 테마이야기 | 영농창업 교육은 '리더 교육'이다

12 테마탐구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22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16 테마인터뷰 | 영암군 '츄스러운 토마토' 함형국 대표

20 테마컨설팅 |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24 테마인포 | 청년창업농 현황과 청년농업인의 전망

28 명인·명가, 農談 | 유기농명인 제8호,
광양시 방선호 명인

32 우리동네 강소농 | 여수시 '담쟁이' 박석순·이은실 대표

36 농업경영 우수사례 |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 3회

40 청년창농타운 | 순천시 '참새방앗간' 김만호 대표

44 농 U P 테크 | 전라남도산 강황과 배초향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

46 병해충정보 | 벼 도열병·벼 줄무늬잎마름병·
벼 키다리병·벼물바구미

50 여행N맛 | 신령스러운 빛고을, 영광(靈光)
아이와 함께 만드는 달콤한 조리법

56 귀농·귀촌 길잡이 | 담양군 '꿈에그린 농장' 고재규 대표

58 글로벌팜 | 일본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과 의미

62 수출농업 | '전남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모집 계획

64 온택트 상생장터 | 완도군이습·장흥물

66 농업인안전 365 | 더위 방지 및 자외선 차단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70 달라지는 농정제도 | 전라남도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2 농업인교육 | 7·8월 교육 일정

74 J A R E S 뉴스

78 독자마당

곡물



체: 체질을 바꾸는 농업 — 체인지—體人智—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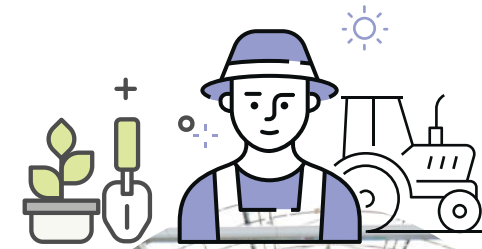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는 농업의 가장 큰 위기이지만,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원동력은 '청년'이기에, 열정을 가진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ecial Theme

- 08 테마이야기 | 영농창업 교육은 '리더 교육'이다
- 12 테마탐구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22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 16 테마인터뷰 | 영암군 '츄스리운 토마토' 함형국 대표
- 20 테마컨설팅 |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 24 테마인포 | 청년창업농 현황과 청년농업인의 전망

영농창업 교육은 '리더 교육'이다

글 |
전남대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한태호 단장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누가 봐도 답이 없는

누가 봐도 영농창업은 답이 없는 방향이다. 도시에서 월 3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나름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그려볼 수 있는 조건이다. 부부가 맞벌이한다면 더 안정적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중소기업에 입사해 월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삶은, 젊은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삶이라고 한다.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수입과 편한 마음을 가지고 카푸어¹⁾를 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못 할 세대'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다. 이들이 농촌에서 현실적인 꿈을 꾸도록 하려면 자긍심을 가지게끔 내부환경을 변화시키고, 외부환경을 농업 분야 상위 1%에 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 즉 진지해야 한다.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의 시작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계와 현장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2016년에 대형 교육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사실 큰 모험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사업이 그것인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EPTIS)을 통하여 5개 대학에서 열정 있는 교수들과 현장 선진농업인들이 함께 뛰어든도록 마당을 열어 주었다. 대학의 교과목 편제를 변경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업이었다. 전남대·전북대·충남대·경북대·천안연암대, 5개 대학이 2017년 최종 합격 되어 영농창업인을 만들기 위한 학생모집을 시작하였다.

전남대학교는 영농실습교과목 9과목과 영농이론교과목 3과목을 새로이 준비하여 총 42학점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사실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처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장경험이 국내에서 가장 풍부하신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들의 이해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시설원에 현장에서 시대를 풍미하신 정순주 교수의 제자들인 이정현, 이상현, 한태호 교수가 정순주 교수의 꿈에 한발 다가간 현장이었다. 네덜란드 시설원에 현장을 이해하고 국내 시설원에 현장은 어디라도 달려가 도움을 주는 이정현

1. 카푸어(Car Poor)는 자동차를 뜻하는 Car와 빈곤층을 뜻하는 Poor를 합친 단어. 자동차의 구매비용 및 유지비용 부담으로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교수의 현장경험, 국내 배 수출산업의 가장 핵심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이상현 교수의 네트워크,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교내 모든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한태호 교수의 따뜻한 리더십, 이 조화가 본 사업단의 가장 큰 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후배 학생들의 자존감, 유대감, 연대감, 사회성, 협동성, 자립성, 리더십 등을 키우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립 후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 전남지역 농업의 가장 단단한 연대감이 있는 선도그룹이 되도록 졸업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1회 모든 교수와 함께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의 교수직을 마다하고 10만 평의 실험포장이 있는

전남대학교로 오신 구강모 교수의 합류는 학생들에게 미국 교육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작년에는 원예생명공학과 최초로 여성 교원이 합류하였는데, 당사자인 이영분 교수는 원예품질관리전문가로 치유농업과 원예가공까지 지도하고 있다.

원하는 학생이 입학하도록 하는 숨은 노력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을 꾸리고 보니 고등학교 성적과는 무관하게, 원예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영농창업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대학 입학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전형이 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농어촌학생전형 1명·특성화교졸업자전형 2명)에서 3명, 학생부종합전형(후계농업경영인전형)에서 5명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학과입학정원 중 32%의 학생은 영농창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원예생명공학과에서는 입학사정관에 직접 참여하여 성적보다는 재능과 관심에 비중을 두고 판단해, 1차 서류 선발 후 2차 면접 선발에서 학과 교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농업을 짊어질 자긍심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입시 결과에서 증명이 되었다. 작년 기준 후계농업경영인전형의 경쟁률은 11:1로 예년에 비하여 2배 상승하였으며, 학생부 등급 역시 2.69로 크게 향상되었다. 특성화교졸업자전형 역시 꾸준히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1년 학생부종합교생활우수자전형의 경쟁률이 29.3:1로 전남대학교 일반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력 있는 학과로 발전 중인 것을 실제 입시 경쟁률에서도 객관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성공 조력자들과 함께

교육사업단의 성공은 실제적 성과를 얻기 대단히 어렵다. 모두 진심이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교수도 학생도 그리고 숨은 조력자들도 그렇다. 숨은 조력자들은 가구를 만들 때 나무들의 아교 역할을 해준다. 어설픈 진심은 학생들에게 쉽게 들린다. 곧바로 실패로 이어진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업단은 진심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업단들과 다르게 여러 장치가 되어 있다.



팀장, 과정장, 팀원, 그리고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모두 진심과 사랑이 뭉쳐져 학생들의 앞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업단의 팀장, 과정장, 팀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대부분의 국내대학은 학생들의 자치실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공간은 언급생심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자치공간으로 2층 건물인 창업발전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플랜트 빌리지'로 명명하고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청년낙원' 협동조합에서의 지역사회 봉사, 농산물 판매 및 가공, 학생자치회의 등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 대응지원 덕분에 학생들에게 대형비닐온실 4동으로 구성된 '인큐베이션팜'이 제공되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심어보고 싶은 품목 결정부터 재배, 수확, 판매까지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야말로 학생공동체의 부활이다. 전국의 대학에서 사라진 풍경을 전남대학교 '인큐베이션팜'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옆에 지켜서 도와주는 교수들, 절대로 앞에 서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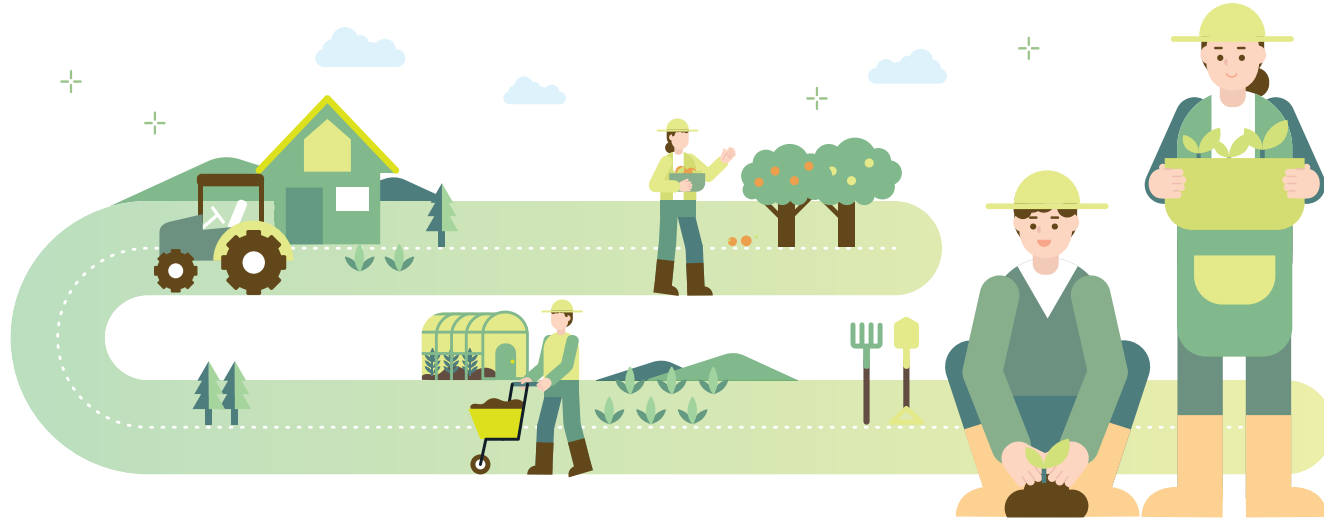
영농창업을 시작한 전남에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지역 인재들

2016년 열정적으로 시작한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은 201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결실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영농창업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청년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큰 자존감을 가슴에 담고 영농창업을 전남에서 시작했는데, 진실로 귀한 존재임을 전라남도과 지자체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전남에서 활동할 청년농부 육성과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에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라며, 젊고 싱싱한 브랜드인 아진농원·푸릇푸릇·로와농장·맛디아농장·나주곡간·스위트베니 브랜드 모두를 응원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22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김민수 지도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전라남도에 터전을 잡은 청년들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48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다. 사업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비는 1명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5가지 형태로 신기술, ICT 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분야이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화 단계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 사례 1

매일 만나는 생기로움,
고흥군 '노란소쿠리' 류진호



류진호 대표는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 과수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에서 1.5ha의 유자 과원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청유자와 유자즙을 생산 및 체험, 판매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류 대표는 청유자부터 수확을 시작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분산하고, 기존의 유자 선별방법을 본인 만의 노하우로 체계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유자 수확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유자즙을 가공하고, 유자체험을 통해 다양한 소득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천만 원, 우수고객 확보는 3천명이 증가하였고,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8명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류 대표는 서울 근교의 장터와 코엑스 등지에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유자와 아메리카노를 접목한 '유자리카노', 뽕튀기 등의 상품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사례 2

✧ Rice to meet you, 진도군 '오래들 농장' 채영곤

채영곤 대표는 2012년 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영농을 승계하기 위하여 귀농한 청년농업인이다. 진도군 의신면에서 약 60ha의 벼농사를 짓는 한편, 진도친환경메밀단지 작목반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aT유통공사와 매년 메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채 대표는 '소비자의 건강한 먹기'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 친환경단지(의신유기단지·신촌단지·도목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법을 연구·전파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참여하여 농가소득 확대를 꾀하는 중이다.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명주인 '진도홍주'도 생산하고 있다. 진도홍주는 당해 생산한 100% 자가재배 햅곡 쌀과 보리만을 원료로 원주를 두 번 증류하여 술맛이 깊고 깔끔하다. 찹보리를 원료곡으로 사용하여 목 넘김이 부드러워 감압식 증류법으로 홍주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_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대상 선발 공모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대상 선발 공모전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지역사회 역할과 공헌 등 1·2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우수 청년농업인 5명이 선발되었다.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은 강진군 정철, 최우수상 해남군 이로운, 우수상에는 구례군 최창록·보성군 강민석·해남군 박홍규 대표이며, 창농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금으로 대상에 4천500만 원, 최우수상 3천500만 원, 우수상에 각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상을 받은 정철 대표는 고품질 딸기를 태국,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최우수상의 이로운 대표는 정관장, 오설록 등과 인삼 계약재배를 통해 매년 6톤의 친환경 인삼을 납품하는 등 인삼 품질 개선에 공헌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최창록 대표는 스마트 농업을 통한 딸기 재배기술 향상, 강민석 대표는 청년농업인으로서 4-H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박홍규 대표는 절임배추 가공을 통한 지역 고용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농업인이 전라남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_ '전남 청년4-H 과제 공모전'

전남 청년4-H 과제 공모전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청년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농업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를 지키며 지역을 선도하는 청년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농업생산, 가공, 유통, 융복합 분야의 자립역량 강화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제를 공모했으며, 선발인원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5명씩 총 20명이다. 이들은 우수과제 모델화를 위하여 대상에 5천만 원, 최우수상 3천500만 원, 우수상 3천만 원, 장려상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3월에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성 및 기획력, 성장 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엄격하게 심사하여 20개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강진 쌀 귀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강진군 4-H연합회 이지희 회원과 매년 5천 명 이상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딸기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담양군 임동만 회원 등이 선발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4-H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청년4-H가 중심에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과제 발굴과 과제 활동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점음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농업의 길

영암군 '촌스러운 토마토'
함형국 대표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 농업

함형국 대표와 배우자인 김효인 씨는 서울에서 만나 서울에서 결혼한 커플. 함 대표의 고향이 군산이고 김효인 씨의 고향은 영암이긴 했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포함한 집안의 가장이 되자 함 대표는 자신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 어느 분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그 폭도 넓습니다. 새롭게 배워야 할 기술들도 쉴 새 없이 개발되는 데다, 출시되는 신제품에 제가 개발한 앱이 구동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매일 같이 밤을 새우기 일쑤였지요.” 육체적 고단함도 컸지만, 변화의 속도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심했던 것이 농업으로의 전직이었다. 그의 장인, 그러니까 김효인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토마토 하우스에서 몇 번 일손을 거든 경험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물론 주위에서는 만류하였다. 누구보다 그의 아내부터 반대하였다. 영암은 한반도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하는 곳. 더구나 이제 막 큰 아이가 태어난 데다, 장인어른도 그다지 달가워하지는 않으셨다. 그런데도 함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암으로 이사를 온 것이 2016년, 이제 막 신혼이 지난 결혼 5년 만의 일이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기 마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라면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인류가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변화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는 노력할수록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그 노력의 형태 역시 변화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청년 농업경영인이 있다.

글·사진 |
정환정(작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내일의 꿈

“영양으로 온 후 처음에는 토마토와 무화과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영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무화과니까요. 하지만 연중 거의 끊임없이 수확할 수 있어 돈의 회전이 빠른 토마토가 저희에게는, 그리고 향후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는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토마토 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아직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이 그리 널리 퍼지지는 않았던 상황. 함 대표는 그저 하우스를 높게 짓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하우스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주위에서는 그런 함 대표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작물을 불문하고, 하우스는 일정 높이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태풍이 오는 등 바람이 강할 때면 피해를 입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확실한 피해에 대한 대비보다는 확실한 수확량 확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실제 제가 견학을 갔던 여러 선진농가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우스를 짓는 동안 농업용 ICT라 불리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관련 전문가를 일부러 찾아다녔고, 토마토에 관한 공부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동시에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결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을 성실한 공부로 보충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배우면 배울수록 책 속의 토마토와 제가 키우는 토마토가 다르다는 사실을 더 깊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했어요.”

함 대표가 목표로 하는 토마토는 ‘기본이 되어 있는 토마토’라고 하였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토마토가 원하는 만큼만 먹고 햇별을 보여주고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완성시킬 수 있는 토마토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배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였다. 그가 스마트팜의 세팅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한데, 다행히 젊은 스타트업과 의기투합해 더 완성도 높은 스마트팜을 구성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전직 앱 개발자’라는 경력의 큰 도움이 된 순간이기도 하다.



경영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보이는 것

귀농 6년 차에 접어든 함 대표는 지난 2019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들이자, ‘배운 대로만 하겠다’라는 그의 노력에 대한 방증인 셈이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는 격언은 함 대표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철칙이라고 하였다. 성공 욕심에 밀식을 하거나 액상비료 등을 과투입하면 결국 손 쓸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마련이다. 기본을 지키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가 바라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함 대표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장을 경영한다고 표현했는데 투입되는 원가, 생산되는 토마토의 수량, 그것을 판매해 얻는 총수입과 순수익에 대한 명확한 계산 등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 작업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작물을 돌보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에서 변화를 꾀해 경영 효율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함 대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인 ‘촌스러운 토마토’를 더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의 사례를 통하여 더 많은 귀농인이 주변에서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공동 출하 등을 통해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물론 6차 산업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온실을 새롭게 지어 토마토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 중이거든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영양 청년농업의 새로운 중심점이 되기 위하여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의 꿈이, 토마토처럼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기반이 악화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전라남도는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처 | 전라남도청 농축산식품국

1.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 (진입단계)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품목별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남 농업마이스터(27명)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사업대상:**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하여 이론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영농기술에 대해 노하우 전수

● 추진절차(*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문의처:** 농업정책과 (061-286-6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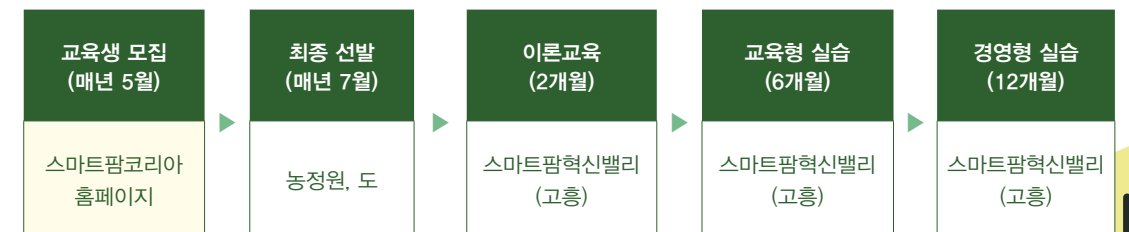


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진입단계)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취농할 수 있도록 특화된 이론·실습 중심의 장기보육 과정 운영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교육내용:** 품목별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장비 활용·제어기술 등
- **교육기간:** 20개월 / 입문 과정(2개월), 교육형실습 과정(6개월), 경영형실습 과정(12개월)

● 추진절차(*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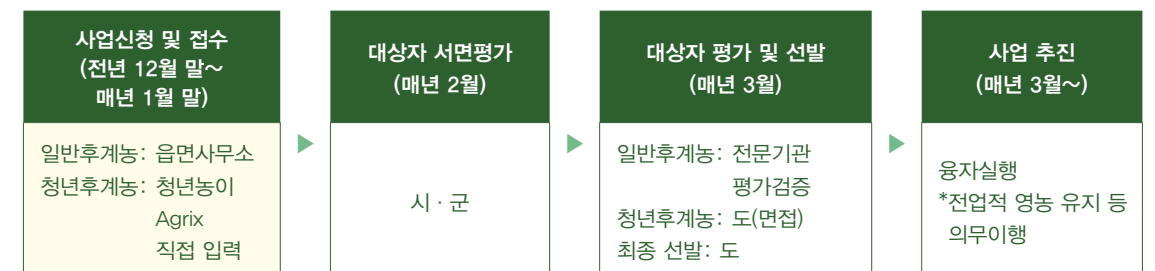
- **문의처:** 식량원예과 (061-286-6492)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착단계)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예농업 인력으로 육성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자, 농업교육 이수자 및 농과계열학교 졸업자
- **사업비:** 1인당 최대 3억 원 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 **대출기한:**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 대출신청
(단, 자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까지 사업계획상의 대출자금의 실행을 완료해야 함)
- **이자:** 연리 2%
- **사업내용:**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 창업 및 규모 확대 사업

● 추진절차(*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문의처:** 농업정책과 (061-286-6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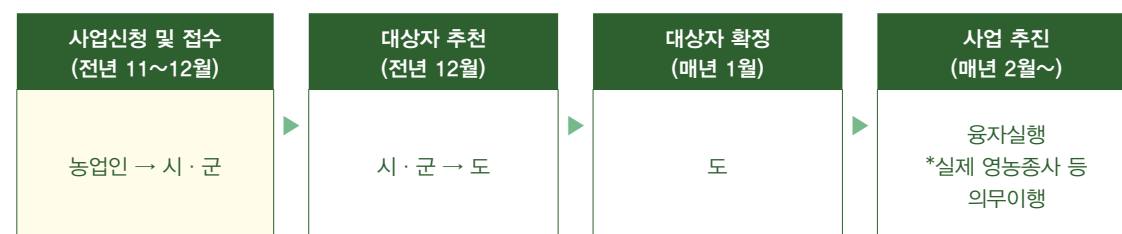


4. 학사농업인 육성 (정착단계)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 **사업대상:** 도내 거주하는 50세 이하자로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비:** 1인당 최대 2억 원 융자(도 농어촌진흥기금)
 - 연리 1%(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 추진절차(*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문의처:** 농업정책과 (061-286-6243)

5. 청년창업농 조성 (정착단계)

창농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농산업 고부가가치 구현을 위한 S/W, H/W 지원

- **사업대상:** (일반회원) 전라남도내 소재한 창농 7년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창농기업) 전라남도내 소재한 창농 7년 이하의 기업(연령제한 없음)
(지원기업) 제한 없음
- **사업내용:** (S/W) 농산업 창업 성장단계의 교육 및 사업지원
(H/W) 창농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 추진절차(*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문의처:** 농촌지원과 (061-330-2742)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매뉴얼

1. 지원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정 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세부기준
연령 및 지원규모	• 사업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자 22년도 사업신청 가능(1982.1.1.~2004.12.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2. 선정 절차 및 방법

청년후계농 지원은 아래와 같은 사업신청 단계를 통해 지원 신청한다.

1단계 (자격요건 확인)	청년후계농 선정공고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청년후계농 신청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계획(영농계획,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 등) 등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지자체 담당자나 농업기술센터 등)의 상담과 자문을 받는다.
3단계 (구비서류 준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청년후계농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아래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참조) 등을 준비한다.
4단계(신청서 접수)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을 통해 접수한다.

• 청년후계농 대상자 신청 시 신청자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 ① 영농(창농) 계획서
- ②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③ 병역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④ 사업자 등록증
- ⑤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⑥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⑦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⑧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⑨ 농산업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⑩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⑪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⑫ 농업 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 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⑬ 가족관계등록부(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 뒷부분 6자리는 전부 비공개 처리)
- ⑭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창업농 현황과 청년농업인의 전망

통계청 농어업인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 2,956명에서 2019년 224만 4,783명으로 26.7% 줄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2010년 30~49세 청년농업인 비율은 전체 농가인구의 19%를 차지했지만, 2019년 11%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은 31.8%에서 46.6%로 훌쩍 뛰었다. 해결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은 달라진 농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청년창업농의 현황과 그들이 생각하는 농업 전망에 관해서 살펴보자.

청년창업농(후계농) 선정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4.0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선발되었으며, 경북(17.0%)·전북(16.6%)·전남(15.9%)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단위: 명)

연도	전국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충남	강원	충북	특광역시	제주
2018	1,600	255	247	240	162	207	152	83	83	104	67
2019	1,600	292	270	258	187	160	144	80	82	74	53
2020	1,600	268	282	270	170	151	175	82	82	74	46
2021	1,800	304	294	282	195	166	192	112	101	83	71
합계	6,600	1,119	1,093	1,050	714	684	663	357	348	335	237
비율(%)	100.0	17.0	16.6	15.9	10.8	10.4	10.0	5.4	5.3	5.1	3.6

부모와는 별도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인원이 44.2%,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 36.2%,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하는 인원은 19.2%로 파악된다.

청년창업농 선정자의 주 생산 품목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채소(시설·노지)	1,720	26.1	식량작물	643	9.7
과수	1,022	15.5	화훼	245	3.7
축산	876	13.3	기타(경종작물 복합 등)	1,029	15.6
특용작물	462	7	복합(축산+경종)	603	9.1

목표영농계획에 따른 주 생산 품목은 채소가 2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수(15.5%), 축산(13.3%), 식량작물(9.7%), 특용작물(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에게 묻는다

출처 | 한국갤럽 · 농민신문 '청년농 100명 설문조사'(2018.08.15.)

농업소득 현황 및 전망

• 현재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한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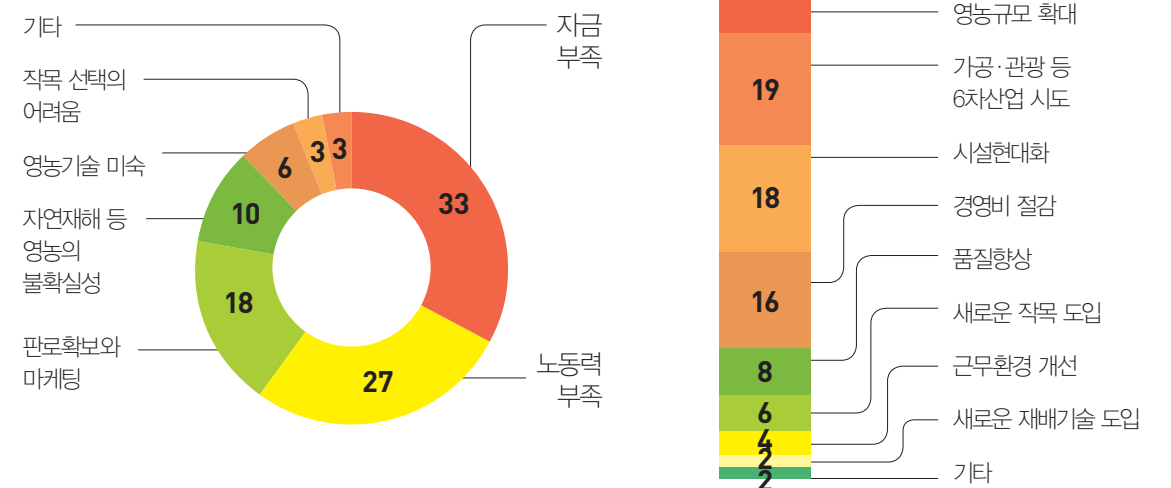
•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갈 전망이 있는가? (단위: %)



농업경영 애로사항 및 중요도

• 농업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단위: %)

• 농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위: %)





인: 세상을 바꾸는 농업 — 체인지—體人智—CHANGE

“지난 500년간 인간의 힘은 경이적으로, 유례없이 커졌다.
인구는 14배로 늘었는데 생산량은 240배, 에너지 소비는 115배 늘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문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년 후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와 실행... 지금 우리가 기꺼이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Index	28	명인·명가, 農談 유기농명인 제8호, 광양시 방선호 명인
	32	우리동네 강소농 여주시 '담쟁이' 박석순·이은실 대표
	36	농업경영 우수사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 3회
	40	청년창농타운 순천시 '참새방앗간' 김만호 대표
	44	농 U P 테크 전라남도산 강황과 배초향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
	46	병해충정보 벼 도열병·벼 줄무늬잎마름병·벼 키다리병·벼물바구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 1983년부터

유기농명인 제8호
광양시 방선호 명인

MASTER

웰빙(Well Being)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뜻하며, 쉽게 말해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 서양의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로 대변되는 음식문화에 슬로푸드와 유기농 등 건강한 먹거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미 20년 전인 1983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온 유기농 선구자가 있었으니, 바로 방선호 명인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실시로 전남의 유기농업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명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소개합니다.

독심으로 밀어붙인 친환경농법

방선호 명인이 유기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충청북도 괴산의 자연농업학교에 입학한 방 명인은 농약을 쓰지 않고도 병해충을 예방하는 친환경농법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83년부터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적인 농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농촌에서는 농약을 당연히 하였고, 정부와 지자체조차 유기농법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혼자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목초액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 개발을 시작으로, 독초와 토착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자재를 연구하고 직접 제조해가면서 농약 사용 문제를 해결했지요. 친환경농법은 일반 농법보다 작업량은 많은데 수확량이 적어요. 게다가 초창기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 자체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방 명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농업으로 제값 받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위해 독심으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생산해 낸 명인의 안전한 먹거리는 2000년대 들어 웰빙 바람을 타면서 호응을 얻게 되었다.

“2002년에 자농약·유기농 인증 획득을 했고요, 2005년에는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웃을 설득하여 귀촌친환경영농회를 결성해 친환경유기농법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지요.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9년에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람도 토양도 작물도 모두 건강하도록

방 명인의 친환경농법 확산 노력은 관동마을에서 그치지 않고 광양시 전체로 확대되었다.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광양시 농가가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판로 또한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친환경농업인상, 친환경 농업대상, 대한민국 사회공헌 농업경영인 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유기농명인 제8호로 인정받았다.

“친환경유기농법은 사람도 토양도 작물도 모두 건강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유기농은 내가 쏟은 노력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친환경농법을 권유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교육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들도 귀농시켜 명인과 함께 친환경농업인의 길을 견도록 만들었으니, 이쯤 되면 친환경농업 대변인 내지는 홍보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해온 친환경농법의 노하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함께 나눠야지요. 친환경농업은 화학농약과 비료로 피폐화된 토양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개선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편이기에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은, 결국 제값 받는 농산물이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장지 농장에서 친환경농법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마장지 농장’ 섬진강 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방 명인이 유기농 매실과 밤, 감 등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가공하는 공간이다. 농장 이름을 ‘마장지’라고 붙인 까닭을 물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전에 말이 살았던 곳이라서 마장지라고 지었다’라는 우직하고 꾸밈없는 명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마장지 농장에서 재배한 매실과 밤은 두레생협연합에 납품하고 있어요. 가공은 매실의 경우 ‘마장지 황매차’라는 브랜드로 판매 중이고, 밤은 ‘마장지 밤묵가루’를 만들고 있는데요, 따로 온라인 판매는 안 하고, 방문 구매하거나 전화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유기농 매실은 일반 매실에 비해 건강하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에요. 이것으로 매실장아찌도 만드는데, 생육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 크기는 작지만 맛이 좋아서 꾸준하게 추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또한, 감과 매실즙을 혼합한 감매실초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기도 했어요.”

‘밤농사에 농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유기농 밤 재배에 성공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방 명인은 입에 발린 소리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 중이라고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연평균 5.3%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2조6,2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만큼 소비자가 보다 더 청정하고 안전하면서 바른,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원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 명인. 신뢰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40여 년 쌓인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명인의 약속은 단단하게 지켜질 것이다. ☺



마장지 농장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관동길 29
주문 및 문의: 010-3666-9640

여럿이 함께, 담쟁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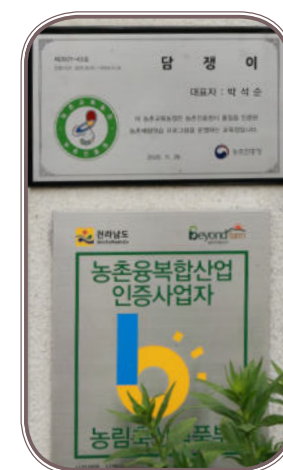
여주시 '담쟁이' 박석순·이은실 대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도중환 시 '담쟁이' 중에서

다양한 전라남도산 농산물과 그것을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제품으로 가공하여 뛰어난 맛과 품질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남도 강소농(強小農)을 소개합니다.



농장명은 도중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읽고 지은 이름이다. 벽을 타고 가는 담쟁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박석순·이은실 대표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어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가라는 시인의 말은, 평소 대표
부부가 어린이집과 오감놀이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교육철학과 닮아있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 여기에 치유를 접목한 곳,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담쟁이'이다.



담쟁이는 자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담쟁이는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입니다. 여기에 생산과
체험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역농
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확물 체험을
통해 농가의 이익창출을 실행하는 한편, 마을의 경관 자원과
담쟁이만의 고유 자원을 병합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읍촌면 반월마을에 위치한 '담쟁이'는 어린이,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다. 교육농장이기에 수확물 체험이 계절별로
준비되어 있으며 텃밭 자원을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과 자연물을
활용한 아트 체험, 원예 치유, 농부 텃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농장 내에는 '카페 반월'과 '담쟁이 펜션'이
있어 휴식 및 숙박이 가능하다. 귀농 6년 차의 이 대표는
귀농 전 자동차 사고 차량 도색 전문업에 종사했던 남편 박
석순 대표와 함께 도시의 아이들에게 흙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반월마을은 여수 여자면과 순천만 사이에 있고요, 일몰이
아름다운 조용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이곳 반월마을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지요. 자연을 활용한 배움 놀이터를 고민한 결과, 이곳이
아파트 상가 같은 아파트에서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자연과 흙냄새를 실컷 맡기에 제격인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쟁이에서 출시한 4종의 체험활동 꾸러미

생산과 체험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¹⁾을 병행하는 ‘담쟁이’의 대표적인 작물은 오디, 블루베리, 사과대추 등이다. 이들 농산물을 즉석 가공하여 잼을 생산하고 있는데, 잼은 현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공품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만들 수 있는 4종의 체험활동 꾸러미를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농촌의 자원 및 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Upcycle)을 강조하는 꾸러미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체험활동 꾸러미로 ‘드라이플라워 캔버스 DIY 만들기’, ‘다육아트 만들기’, ‘소리화분 팜투테이블 장식’, ‘마음 반려정화식물 심기’, 이렇게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체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식물과 교감하면서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 또 버려진 농업 자원을 이용한 체험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싶습니다.”

‘담쟁이에서 출시한 4종의 체험활동 꾸러미는 전라남도의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제품들이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해소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경영난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담쟁이’ 제품을 비롯한 50여 건강꾸러미 제품이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판매 중이다.

1)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치유하는 공간이 되고픈 담쟁이

지난해 ‘담쟁이’는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치유농장’에 선정되었다.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치유농업’이라고 하는데, 치유농장이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담쟁이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도록 참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연구해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농촌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교육농장과 이를 접미한 치유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월마을 반장을 맡아 마을 일에도 열심히 남편 박 대표와 함께 이 대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반월마을 해안가 꽃밭 조성’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여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라남도의 역점 시책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협동에 기반을 둔다. 반월마을 주민들은 2021년 5월부터 6개월간 해안가에 방치된 노후 폐어선과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시 ‘담쟁이’ 중의 한 구절인데요, 저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서로 화합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서로 손 잡은 채 함께 가야지요.”

목표를 향해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기어오르면서 담쟁이는 마침내 그 벽을 넘는다. 서두르지 않고, 여럿이 함께... 열정적인 대표 부부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들의 담쟁이가 벽을 넘는 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듯하다. ☺



드라이플라워 캔버스 DIY

이렇게 만들어요



구성품
꽃다발
목공품
드라이플라워
미니 캔버스
미니 이젤



STEP 1
미니 캔버스 위에
꽃다발을 목공품으로 붙입니다.



STEP 2
꽃다발 위로 천일홍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붙입니다.



STEP 3
나머지 드라이플라워도 붙이고 나서
목공품을 건조한 뒤,
이젤에 올려 주면 완성.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 ③

완도군, 비파 가공·체험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모델 개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전국 농업소득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가 경영개선사업 중 하나이다.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다른 도와 차별되는 고유 사업으로, 작목별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통해 영농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영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우수 농업인 및 경영체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사례를 2022년 한 해 동안 연속 기획으로 소개합니다. 3회는 ‘완도군의 비파 가공·체험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모델 개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파,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90% 차지

‘2021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2020년 8월 비파를 품목으로 신청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완도군이 아열대과일로 집중하여 육성하는 비파는 비타민A, 펙틴, 칼륨, 무기물 등이 풍부해 기능성 과일로 주목받는 특화과수이다. 난대성 작물인 비파는 연평균 18~21℃(최저온도 -5℃ 이상)인 지역에서 잘 자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1ha가 재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91ha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특히 완도군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최적의 재배조건을 갖추고 있어 72ha에서 지역 특화과수로 재배되고 있다. 완도산 비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와 무기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즙이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소득작물로 비파 산업 경쟁력 향상과 비파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 완도군에서는 사업명 ‘비파 가공·체험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모델 개발’에 나섰고, 양동군 농가가 모델 개발농가로 선정되었다. 시설 하우스 4동 규모의 양동군 농가에는 ‘비파하우스 스마트팜 및 체험판매장 구축’을 목적으로 ①일반 노지 농가들보다 3개월 빠른 조기 생산, ②백화점 등 직접 판로 개척, ③고객의 눈높이에

● 비파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모델 주요 투입기술 및 시설·장비

주요 투입기술	시설 및 장비 투입 내용	투입액(백만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① ICT 기술 활용 ② 체험판매장	- 스마트팜 도입, 병해충 경감시설 - 무인자판기, 체험판매장 집기 등	100	20	60	20

※비파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 모델에 투입된 시설 및 장비는 하우스 환경제어 스마트팜, 병해충 경감시설, 무인자판기, 체험판매장 시설과 집기 등임

맞는 카페형 판매·체험장 구축 등의 핵심투입기술이 적용되었다. ‘비파하우스 스마트팜 및 체험판매장 구축’은 시설 스마트팜 도입으로 하우스 환경 원격제어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경감시설을 활용하여 고품질 비파를 생산하고, 비파 가공품 무인판매와 체험활동 제공을 통한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비파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전후 수량 및 수익성(추정)

(단위: 원, %/10a)

구분	도입 전(A)	도입 후(B)	증감률(B/A)
수량(kg)	1,100	1,127	2.5
단가	36,000	38,000	5.6
총수입	39,600,000	42,826,000	8.1
경영비	23,358,689	24,068,023	2.9
소득	16,214,311	18,757,977	15.7
생산비	43,472,739	43,912,740	1.0
kg당 생산비	39,521	38,964	△1.4
노동투입시간	1,052.6	1,025.9	△2.5

비파,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6차산업화로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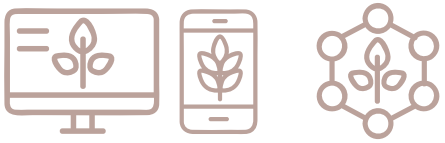
핵심투입기술이 적용된 지 1년여 후인 2021년 9월 15일, 완도군 군외면 소재 양동근 농가에서는 비파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기술 도입, 6차산업화를 통한 비파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시회'가 완도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동 개최로 열렸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하우스 병충해, 조수 피해 경감시설 도입 고품질 비파 생산', '비파 부가가치 증대 가공품(주스, 잼) 제조, 무인판매기 도입', '체험장 운영으로 비파 6차산업화 및 경쟁력 향상', '스마트팜 현장 연시' 등이 진행되었다.

1년 여간의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파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전후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10a당 수량은 1,100kg에서 1,127kg으로 2.5% 증가하였으며, kg당 생산비는 39,521원에서 38,964원으로 1.4% 감소하였다. 소득은 16,214천 원에서 18,757천 원으로 15.7% 증가하였다. 또한, 하우스 병충해, 조수 피해 경감시설 도입 및 스마트팜 관수 관리 효율화로 노동 시간이 애초 10a당 1,05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나 1,025시간으로 2.5% 감소하였다. 비파 생산비 절감 스마트팜 생력화 재배기술을 20ha에 확산하면 인력 대체는 675명 정도 가능하고 농업생산액 645.2백만 원, 농가소득 508.7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생산비는 88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장과 무인자판기 설치 운영으로 매출액이 155.2%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432.9% 증가하여 소득은 15.7%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 비파하우스 스마트팜 생력화 재배기술 도입의 경제적 효과

작목	도입 면적	인력 대체	기대효과(백만 원)		
			농업생산액 증가	농가소득 향상	생산비 절감
비파	20ha	675명	645.2	508.7	-88.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완도군을 '비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새콤달콤한 열매는 먹고, 잎과 씨앗은 한약재로도 쓰이는 아열대과일 비파. 특유의 황금빛 색깔 때문에 황금 열매로 불리는 비파는 노지에서 재배하면 보통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수확한다. 그러나 완도군의 경우 시설재배에 성공하면서 노지보다 수확이 두 달 이상 빨라졌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완도산 비파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하는 비파가 되었다. 시설 하우스에서 작년 12월 초부터 난방을 실시하고, 적절한 열매숙기와 봉지 씌우기를 해줘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산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완도산 비파는 당도가 평균 13Brix로, 과즙이 많고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소비시장에 두 달 먼저 조기 출하한 덕분에 시설재배 비파의 가격은 노지재배보다 2배 이상 높게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비파 가공·체험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모델 개발' 농가로 선정된 양동근 농가의 경우 kg당 4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서울지역 백화점에 출하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아열대성 과수인 비파를 우리나라 생산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하였으며, 비파 재배농가 확산을 위해 과수연구소의 현장 컨설팅 등 전문 농업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고품질 비파 생산량을 150톤으로 늘려 완도군을 '비파의 고향'으로 알리는 한편,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해 수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농업경영 우수경영체 시리즈'는 7·8월호에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국산 보리로 수제 맥주를 만들다

순천시 '참새방앗간' 김만호 대표

제가 거주하는 순천시 낙안면이
맥주보리 채종포 단지였어요
이 지역의 보리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산 보리를 사용하면
확실히 차별화가 될 테니까요

지역의 보리로 부가가치 창출하기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지만 귀농을 결심한 후 확실하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농업 또한 예외는 아니기에, 이러한 기술과 만나서 변화된 농업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용작물학과에서 인삼, 작약, 당귀, 감초 등을 배우고 고향인 순천시로 돌아왔다. 오이하우스와 수도작을 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작물 재배법과 현장에서의 적용 등을 비교해가며 농사를 지었다. 이런 식의 농사가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농업이 1차 생산물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김만호 대표는 1차 생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제가 거주하는 순천시 낙안면이 맥주보리 채종포(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한 재배포지) 단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보리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재료를 보면 외국산 보리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국산 보리를 사용하면 확실히 차별화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다. 외국산 보리는 국산에 비해 약 4분의 1 정도 가격. 가격만 놓고 보자면 경쟁이 아예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언가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은 확실히 있었다.

청년창업타운은 청년을 비롯한 도민이 농업·농촌과 연계한 2·3차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곳으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실습형 공간입니다. 비즈니스로서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시킬 청년창업타운 입주 회원을 소개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쇠를 가공하는 금형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 높은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원했던 행복한 삶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자마자 귀농을 결심하였다. 금형 회사에서 8년간 근무한 후였다. 그렇게 김만호 대표는 청년농업인이 되었다.



주세 감면, 맥주 대신 지역특산주로

방법은 맥주가 아닌 '지역특산주'로 등록하는 것.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가 70%의 세금을 낸다면 지역특산주는 30%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국산 보리의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세 감면을 고려하면 결국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다. '100% 국산 보리로 수제 맥주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김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맥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해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창업캠프'에 아내와 함께 팀으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2년에 걸쳐 수제 맥주 관련 교육과 현장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었고, 2021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을 거쳐서 지금은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어엿한 지역특산주 제조장으로 면허를 취득했지요."

맥주보리 재배에도 직접 뛰어들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맥주보리 품종 '흑호'를 부모님께 증여받은 농지에 심었다. 보리 색깔이 검은색인 '흑호'는 일반 보리에 비해 항산화 성분을 2배 이상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흑호'로 맥주를 만들면 그 색이 진하고 청량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김 대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천만보리'와 소규모 양조장 겸 지역의 농업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수제 맥주 체험장인 '참새방앗간'도 설립하였다.

보리 색깔이 검은색인 '흑호'는 일반 보리에 비해 항산화 성분을 2배 이상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흑호'로 맥주를 만들면 그 색이 진하고 청량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농산업 창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사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앞으로 청년창농타운에서 받게 될 전문성을 갖춘 멘토의 전폭적인 지원이 몹시 기대됩니다.



청년창농타운과 함께 목표를 향하여

"순천시 장천동에 자리한 '참새방앗간'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수제 맥주를 체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허가받은 지역특산주 양조장이기에 제조와 생산은 물론이고, 포장 판매도 하고 있지요. 이곳에서 두 가지 수제 맥주를 맛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흑호' 보리를 가공한 '어흥'이고, 다른 하나는 순천 낙안지역의 토착 보리를 재료로 한 '참새방앗간'이라는 맥주입니다. 현재 제품화하는 단계에 있어요."

김 대표는 수제 맥주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런 그에게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학교이자 도서관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자문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Mentor,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도, 경쟁력제고사업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자주 방문하면서 알게 되어 지원할 수 있었다.

"친절한 멘토를 만난 것이 큰 복인 셈이지요. 기술원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청년창농타운에 입주하게 된 것도 사실 그분들 덕분입니다. 농산업 창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사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앞으로 청년창농타운에서 받게 될 전문성을 갖춘 멘토의 전폭적인 지원이 몹시 기대됩니다. 지역의 농업과 문화가 녹아있는 수제 맥주를 꼭 만들어야 하니까요." 지금은 수제 맥주 형태의 지역특산주로 불리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어 수제 맥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김 대표. 그 역시 지금은 청년농업인에 불과하지만, 명인으로 인정받을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을 듯하다. ☺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가능성 농식품, 농작물 신제품 등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농업정보를 소개합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식·김표현 연구사

전라남도산 강황과 배초향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

강황 보디클렌저, 피부 수분 개선과 각질 제거 효과

국내 향 관련 산업 시장은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정유 성분을 이용한 향료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원가 경쟁력이 낮아 소재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치유형 아로마 자원이 풍부하여 수입 향료 소재를 국내 농산물로 국산화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강황(울금), 배초향 등 전라남도 주요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장 소재 및 향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향장 소재 및 향장품과 관광산업을 연계 하려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전라남도 주요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장 소재 가운데서도 특히 강황은 북미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제약,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이다. ‘커큐민(Curcumin)’은 강황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진도지역에서 생산한 강황이 지난 2014년 ‘진도울금’으로 ‘제95호 지리적표시등록’을 통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진도지역 특화작목인 강황을 이용한 향장품 소재화를 위해 정유를 추출하고 효능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자. 항염 효능평가는 세포의 산화질소(NO, Nitric Oxide) 생성량 감소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강황에서 추출한 천연 정유가 양성대조군¹⁾ 대비 산화질소 생성량을 39% 감소시켜 항염 효능이 인정되었다. 또한, 병원성미생물에 대하여



배초향

배초향 패치

강황 보디클렌저

모두 강한 항균력을 보였으며, 특히 고초균(*Bacillus Subtilis*)²⁾의 경우 최소저지농도(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³⁾가 6.25 mg/ml로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효능이 있는 강황 정유와 분말을 이용하여 보디클렌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품의 효능평가를 위하여 임상실험기관에 의뢰하였고 도시소비자 22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 2주 후 26%의 피부 수분 개선과 68%의 각질 제거 효과를 인정받았다. 개발된 기술은 지난해 특허출원 후 도내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진도 쓸비치리조트 내 특산물관에 입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대조군. 예를 들면 약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효과가 이미 입증된 다른 약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 간균과(杆菌科)의 호기성(好氣性) 세균의 하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병원성(非病原性) 세균

3) 항생 물질 등의 효력을 감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 감정 균의 생육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제의 최소 농도를 말한다.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이 트렌드화 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자연치유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농촌진흥청 보고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1조6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중에서도 식물 정유 성분은 일반적으로 생리활성작용, 항균작용, 방충작용, 생체리듬 조절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천연 향료 및 식품 방향제의 원료로 매우 중요하다.



강황의 대표적 효능

- ① **피부 효능**: 피부상재균 5종에 대한 항균 활성 확인, 피부 수분 개선과 각질 제거에 효과
- ② **관절 건강**: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식품 원료로 등록, 한방에서도 관절염 등의 치유 목적으로 사용
- ③ **염증 치료**: 커큐민 성분이 중앙괴사인자 세포의 작용을 감소시켜 세포의 염증반응 억제
- ④ **항암 효과**: 암 관련 인자의 산화, 과잉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사망 촉진 및 생성 억제

배초향 마스크 패치, 항균과 항산화에 시원한 느낌까지

배초향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에 주로 분포하며 방아, 곱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구취, 소화, 진통, 구토, 복통 및 감기 등의 질환에 사용해 왔으며 식품에서는 특유의 향을 이용하여 생선찌개나 탕, 찜에 넣어 비린내를 없애기도 하고 부침개를 부칠 때 같이 넣어 활용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배초향 정유가 항균, 항산화 등 효능이 뛰어나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기에 다른 천연 정유와 혼합하여 개선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화 된 마스크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스크에 붙이는 형태의 패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마스크 패치 제품을 도시소비자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 이상이 호감을 표했으며, ‘향이 좋고 시원한 느낌이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했을 때 생기는 답답함을 날려주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배초향 정유를 이용한 마스크 패치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출원 진행 중이며, 출원 후 향장품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특화작목의 신소득 창출 및 향료 소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전남지역 농산물의 정유 소재화 및 향장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배초향의 대표적 효능

- ① **노화 방지**: 비타민C·E의 함유량이 많아 탁월한 항산화 기능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
- ② **구취 제거**: 주요 성분의 항균작용으로 구취에 원인이 되는 세균 번식을 막아 입 냄새 제거에 효과
- ③ **부종 제거**: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고, 고혈압 및 몸이 붓는 부종 제거에 도움
- ④ **세포재생 및 보호 효과**: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고, 폴리페놀 화합물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는데 효과

병해충 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병해충, 농약, 작목 정보 등 농작물 병해충 관련 정보를 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벼 도열병

피해와 진단

- 앞: 방추형 병반 형성
(만성형 - 가장자리가 붉은색, 급성형 - 잿빛의 곰팡이 발생)
- 이삭목, 이삭가지: 열은 갈색, 다습 시 잿빛의 곰팡이 형성
- 마디: 암갈색 병무늬 발생, 잘 꺾임

발생환경

- 종자나 이병 잔재물에서 월동, 전염은 병반상에 형성된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려 공기 전염
- 잎도열병은 본답에서 주로 6월 하순,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전후로 감염
- 생육기 비가 자주 오고, 여름철 온도가 낮은 해 심하게 발생

방제대책

- 파종기나 이앙시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생육기에 찬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 질소질 비료의 편용을 금하고 균형시비
- 이앙 당일 육묘상 처리제를 살포, 초기의 잎도열병 방제가 효과적
- 최근에는 모판 관주처리용 약제로 생육 중기까지 방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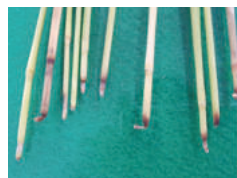
잎 방추형 병반



이삭목에 갈색 병징



마디도열병 고사 증상



마디 흑변 증상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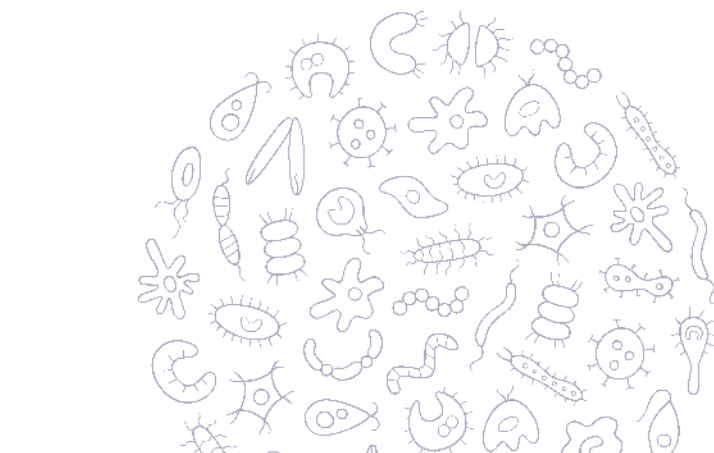
- 생육 초기에 감염되면 잎이 황변, 말리면서 고사
- 후기에도 감염되면 황변, 이삭이 말라 죽어 출수가 되지 않음
- 이삭이 잘 나오지 않으며, 나오더라도 기형

전염양식

- 애벌레가 매개, 병 걸린 벼를 빨아먹은 애벌레는 병원균을 가짐
→ 다음 세대까지 전염능력 보유
- 애벌레는 국내 월동 및 5월 하순~6월 상순 중국에서 날아옴

방제대책

- 병 발생 상습지역에서는 반드시 저항성 품종 선택, 육묘상 약제 처리 등 예방조치 병행
- 벼 본엽 11엽기 이후에는 병에 걸려도 수량 감소가 거의 없음, 못자리 기간 및 본답 초기에 약제 방제 철저



잎 황변 및 고사



감염 시기별 피해 증상

벼 키다리병

피해와 진단

- 심하게 감염된 종자는 발아하면서 말라 죽음
- 중간 정도로 감염된 종자는 키다리 증상 발생
- 약하게 감염된 것은 가지치기가 다소 적고 생육 가능, 생육 도중 발병환경이 좋아지면 도관 내 형성된 포자가 밖으로 자라나 다시 종자 감염

발생환경

- 고온성 병, 30°C 이상의 고온에서 병 증상 나타남
- 상자육묘가 보온절충이나 물못자리보다 키다리병 많이 발생
- 일찍 모내기할 경우 꽃피는 시기와 등숙 기간이 고온다습한 환경과 겹칠 경우 → 1차 감염 증가

방제대책

- 모를 드물게 파종, 못자리 때 지속적으로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병에 걸린 포기는 발견 즉시 제거
- 온탕 소독, 석회황, 화학제 등으로 종자 소독



고사



흰색 포자 형성



기근 발생

벼물바구미

피해와 진단

- 어른벌레: 이앙 초기에 피해 심함, 벼 잎에 가는 흰색선 생김, 밀도가 높을 경우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해 포기 고사
- 애벌레: 뿌리에서 양분 흡수, 생육 지연, 하위엽 황화로 정상적인 분얼이 되지 않아 수량 감소 유발

발생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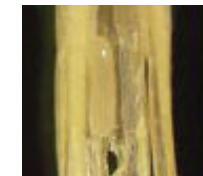
- 기주식물: 띠, 개밀, 억새, 잔디, 갈대 등 11과 92종
- 생활사: 연 1회 발생, 어른벌레로 산기슭이나 잡초더미에서 월동
- 발육 기간: 알 10일, 애벌레 30~40일, 번데기 7~14일, 어른벌레 10개월
- 논에서 우화한 어른벌레는 8월 상순경 산기슭으로 이동하여 월동, 4월 하순 활동 시작, 5월 중순에 논으로 날아들어 118~163개 산란
- 발생 최성기: 월동 어른벌레 5월 하순~6월 중순, 1세대 어른벌레 7월 하순~8월 중순

형태

- 어른벌레: 3mm, 암회색 바탕의 등 중앙에 부정형 흑색 무늬
- 알: 0.8mm, 흰색이며 물속에 있는 벼 잎집 속에 1개씩 산란
- 애벌레: 10mm, 등 쪽의 배환을 벼 뿌리 속에 끼워 산소 흡입

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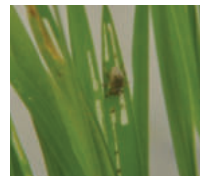
- 이앙 전 육묘상자에 입제 처리로 쉽게 방제할 수 있음



알



애벌레 / 어른벌레



어른벌레 피해



좌: 정상 우: 피해



피해 논

明^지智的見 명^지지적견

'밝은 지혜와 틀림없이 확실한 견해'라는 뜻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지혜와 소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



지:

삶을 바꾸는 농업

체인지—體人智—CHANGE

Index

50	여 행 N 맛	신령스러운 빛고을, 영광(靈光) 아이와 함께 만드는 달콤한 조리법
56	귀농·귀촌 길잡이	담양군 '꿈에그린 농장' 고재규 대표
58	글 로 벌 팜	일본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과 의미
62	수 출 농 업	'전남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모집 계획
64	溫택트 상생장터	완도군이슈·장흥물
66	농업인안전 365	더위 방지 및 자외선 차단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70	달라지는 농정제도	전라남도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2	농 업 인 교 육	7·8월 교육 일정
74	J A R E S 뉴스	
78	독 자 마 당	

신령스러운
빛고을,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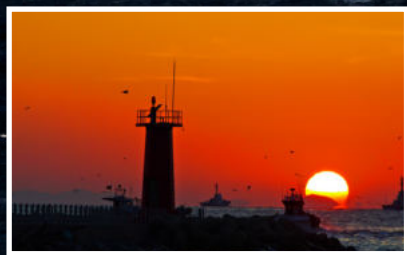
靈光

영 광

‘영광’하면 뭔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지명에 신령스러운 ‘영(靈)’자를 넣어서만이 아니다. 백제 침류왕 시절(서기 384년)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땅이라 그런 것도 아니다. 영광이라는 지명은 불교가 도래한 이후 한참 지난 고려 태조 23년에 지어졌다. 불교도래 후 500년 가까이 지난 940년 경이었다. 영광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종교보다는 자연에서 기인했다 한다. 일단 가보면 알게 된다고도 한다.

글 · 사진 | 함종만(소설가)



낙시도 으뜸, 관광자원도 으뜸인 매력적인 항구 계마항(영광군 제공)

반짝이는 자연의 영묘한 빛

여행작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 그래도 날씨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여겨왔다. 물론 100% 장담할 건 아니다. 날씨는 그 자체로 신묘한 자연현상이니까. 영광 가는 날이 그랬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새벽에 출발해 경기도를 지날 때까지도 잠잠하던 하늘에서 문득 빗방울이 비치기 시작했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공주를 지날 무렵이었다. 돌아가자니 이미 온 길이 짧지 않았고, 내쳐 진행하자니 날씨가 불안했다. 그래도 가보기로 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오후에는 겐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믿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여정은 시작되었고, 가는 날이 장날일지언정 밀려야 본전이니까.

백수읍과 흥농읍을 잇는 사장교, 영광대교(영광군 제공)

불안한 마음으로 속도를 늦춰가면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창 IC를 빠져나갔을 때 문득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간절히 원하면 하늘도 돕는다더니. 영광이라는 곳, 정말 신령스러운 고장인가?

그렇게 백수해안도로로 향하는 길목 초입인 가마미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날씨가 완전히 갠 것은 아니어서 푸른 하늘을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구름이 햇살을 막아주어 명징하고 포근한 사진이 연출되었다. 여행하기에도, 촬영하기에도 좋은 날씨였다.

해수욕장은 텅 비어있었다. 워낙 외진 곳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피서철도 아니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없다. 관리자도 보이지 않았다. 동네도 비었는지 돌아다니는 주민조차 없다. 서둘러 법성포 방향으로 향했다. 법성포가 지척인 지점에서 길이 갈렸다. 왼쪽은 법성포, 오른쪽은 백수해안도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다. 영광대교가 나타났다. 백수읍과 흥농읍을 잇기 위해 2016년 3월 준공한 최대 경간 장 320m, 길이 590m인 사장교를 건너면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라는 백수해안도로가 이어지는 모래미해수욕장이다. 이곳에서 조망되는 풍광도 장하지만 이어지는 길목마다 감탄사가 절로 터졌다.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이라더니, 일단 가보면 안다더니, 진짜 와보니 알겠다.

가슴으로 감상하는 장엄한 풍광

길가에 줄 선 병사들처럼 늠름한 뱃나무들이 지나가는 계절이 아쉬워 꽃비를 흠뻑리는 풍광에 가슴이 절절했다. 참으로 멋진, 그림 같은 풍광이다. 그래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수해안도로라 하는가 싶었다.

안타까운 건 그 풍광을 한 장면에 담아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순간의 정지 화면에 담기에 이 길 풍광은 지나치게 장엄하다. 다행스러운 건 16km가 넘는 백수해안도로 길목마다 멋진 바다 경치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곳곳에 기암괴석과 광활한 갯벌이 펼쳐지고, 칠산정과 백암정 같은 정자가 있어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진강 365계단에서부터 노을전시관까지 이어지는 목재데크 산책로는 백수해안도로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잠시 차를 세워두고 산책을 즐기다 보면 장거리 여행에서 온



1, 2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 전경
3 백제불교 도래지 가는 산책로에서 조망되는 법성진성
4, 5 남도의 인정이 넘치는 굴비 한정식과 굴비 거리 풍광

여행
수첩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IC나 영광 IC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지만, 북쪽에서 내려가는 길이라면 고창 IC를 빠져나가는 걸 권하고 싶다. 가마미해수욕장에서 계마항을 거쳐 영광대교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백수해안도로 못지않다. 여행의 마지막은 법성포 굴비 한정식으로 장식하는 게 좋다. 기름진 굴비구이 외에 조기매운탕과 간장게장을 비롯한 20여 가지 반찬이 여행으로 지친 배를 풍성하게 채워준다.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 2006년 건설교통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국토해양부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 대상 최우수상 수상이 우연이 아니다.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는 '영광굴비'로 유명한 법성포로 이어진다. 남도의 넉넉한 인심으로 차려진 굴비 한정식을 맛볼 일이다. 하지만 굴비를 맛보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다. 포구 앞 식당가로 넘어가는 길목에 숲쟁이꽃동산이 손짓한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만개해 찾는 이들을 반기는 꽃동산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로 이어진다. 산책로를 따라 10분여 걸어가면 불교의 최초 도래를 기념하는 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지에는 다양한 불상과 조형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너무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불자들에게 성스러운 기운을 느끼게 해주기엔 충분해 보인다. 가장 멋진 건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세운 승강기 탑 앞에서 내려다본 성지 경내와 칠산 앞바다, 그 너머 영광대교가 연출하는 풍광이다.

한군데 더 들러야 한다. 법성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법성진성이다. 언덕 위에 우뚝 선 팔각정에 오르면 화사한 벚꽃 사이로 법성포 전경이 펼쳐진다. 한때 조기잡이 배들로 불야성을 이뤘다는 포구 갯벌을 매꿔 인공섬을 조성한 게 조금 낯설지만, 어쩌서 영광이 신령스러운 빛고을인지 스스로 알게 해준다. ☺



노을광장 중앙에 설치된 갯이갈매기 조형물



백수해안도로 끝에 펼쳐진 모래미해수욕장 전경



아이와 함께 만드는 달콤한 조리법

외식조리학을 전공한 요알남 셰프는 부산과 경상북도 청도에서 다양한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며, 400만 조회 수의 유튜브 채널 ‘요리알려주는남자MingStar’를 통해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만만한 집밥 레시피 162>의 저자이기도 하다.

글 · 사진 요알남(셰프)



파인애플 볶음밥

당도가 높고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가 많이 들어 있는 파인애플은 토마토와 더불어 불에 익혀 먹으면 좋은 과일 중 하나다. 또한,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린(Bromelin) 효소는 체내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 작용을 돕는다.

***재료**
 파인애플 ½개, 대파 1개, 당근 ½개, 쌀밥 180g, 식용유 2T, 간장 1T, 피시 소스 또는 액젓 1T, 파인애플즙 1T

- 1 파인애플을 반으로 자른다.
- 2 파인애플 과육의 속을 파 준다.
- 3 파인애플 과육은 먹기 좋게 자른다.
- 4 송송 썬 대파와 다진 당근,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넣고 센 불로 볶는다.
- 5 밥과 간장, 피시 소스, 파인애플즙을 넣고 볶는다.
- 6 마지막에 파인애플 과육을 넣고 볶는다.



치즈 고구마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비타민A가 필요한데,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Beta-carotene)은 섭취하면 비타민A로 바뀐다. 고구마에 들어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며, 이 밖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으로 장 활동을 개선하고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

***재료**
 고구마 2개, 모차렐라 치즈 50g, 올리브오일 2T, 꿀 2T

- 1 껍질을 제거한 후 채썬 고구마를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전분을 제거한다.
- 2 물기를 제거한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5분 정도 굽는다.
- 3 구운 고구마에 올리브오일을 넣고 버무린 후 다시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0분 정도 굽는다.
- 4 구운 고구마를 종이 호일에 담고 모차렐라 치즈를 올려 준다.
- 5 에어프라이어 160도에서 10분 정도 굽는다.
- 6 마지막에 꿀을 뿌려 준다.

Tip 고구마는 껍질째 사용해도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마다 성능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꿀을 찍어 드셔도 됩니다.



딸기 판나코타(Panna Cotta)

판나코타는 생크림과 설탕, 우유를 섞어 끓인 후 젤라틴을 넣어 차갑게 굳힌 이탈리아식 푸딩이다. 딸기의 비타민C 함유량은 100g당 67mg으로 귤의 1.6배, 키위의 2.6배에 달하며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 및 감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재료**
 딸기 4개, 젤라틴 8g, 설탕 7g, 우유 200mL, 생크림 200mL

- 1 젤라틴은 차가운 물에 담가둔다(10분).
- 2 우유, 생크림, 설탕을 넣고 약한 불로 은은하게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젤라틴을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 3 젤라틴이 녹은 판나코타 베이스(2번)를 얼음물에 차갑게 식힌다.
- 4 식은 판나코타 베이스는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1~2시간).
- 5 딸기는 원하는 모양대로 썰어 준다.
- 6 냉동실에 넣어둔 판나코타 위에 딸기로 장식한다.



담양군 ‘꿈에그린 농장’ 고재규 대표

귀농을 결심했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농업도 시골도 싫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가 공부하였다. 그렇게 광주에 터를 잡고 식당 체인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언제부터인가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더니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담양지역으로의 귀농. 고향인 전라남도 장성 대신 담양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전남지역 관광 산업을 놓고 보았을 때 담양이 여수에 이어 2위였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농업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체험과 관광까지도 고려한 선택이었다. 식당 체인을 정리하고, 2014년 최소한의 경비인 단돈 500만 원으로 담양에서의 귀농 생활이 시작되었다.

귀농 초창기, 그라비올라 농사에 도전했다가 영농기술이 부족한 까닭에 실패하였다. 기본이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 재배 기술부터 마케팅, 홍보, 소비트렌드 정보까지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교육받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농촌청년사업가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가공창업, 브랜드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취득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을 통해 대나무·국화·딸기·야관문·감귤류 등 5종의 담금주 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꿈에그린 농장’이 전라남도 ‘2021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업체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청년농업인으로 거듭났다.

“귀농을 결심했다면, 일단 열심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자로서 조언하자면, 작목을 선택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농가를 방문해서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배워야 합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직접 부딪혀 가며 익힌 것들을 신규귀농인과 나눌 테니, 우리 함께 잘사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꿈에그린 농장_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두정길 76, 문의 061-381-2237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전한 귀농 · 귀촌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와 시 · 군별 귀농 · 귀촌 지원사업 등을 알아봅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담양군은 전라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대나무의
 주산지이다. 동쪽은 곡성군, 서쪽은
 장성군, 남쪽은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북쪽은 전라북도 순창군과 접한다.

*행정조직 1읍, 11면
 *면적 455,09km² (전남의 3.7%)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귀농·귀촌 지원센터 상시 운영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담양군 담양읍 면양정로 730) •전화 민원 및 내방 도시민 상담, 귀농·귀촌 컨설팅 지원 •상담문의: 061-380-3437, 3441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 지원대상: 귀농 희망 도시민 및 귀농인 ◎ 대상인원: 4과정 80명 ◎ 교육내용 •이론반: 귀촌생활반(5회/3~7월/30명), 재배이론반(5회/7~8월/30명) •실습반: 영농체험반(10회/3~5월/10명), 딸기수경재배반(10회/9~11월/1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지원대상: 5년 이내 귀농·귀촌인(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사업내용: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현장실습비 지원(5~7개월) ◎ 지원내용: 월 선도농가 800천 원, 신규농업인 400천 원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한 자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농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세대주 ◎ 사업내용 •농업창업(경종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등 •농업창업(축산분야): 축지구입 및 축사신축, 보수 등 •주택구입(신축, 개축, 증축)지원, 연면적 150㎡ 이하 ◎ 융자조건: 세대당 최대 농업창업 300백만 원, 주택구입 최대 77백만 원 한도 내 융자 지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 사업내용: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를 위한 창업 실행비 및 컨설팅비 지원 ◎ 지원내용: 1개소, 12,500천 원(보조 100%)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만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세대주 ◎ 사업내용: 중보수, 경보수 등(주거공간만 수리 지원) ◎ 개소당 6,250천 원(보조 70%, 자부담 30%)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도시민 및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업내용: 선배귀농인 및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현장감 있는 컨설팅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 지원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지원규모: 6팀(기수별 3팀), 2기수로 운영(1기: 4~6월, 2기: 7~9월) ◎ 지원내용: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3개월 이내 지원 ※숙박비 및 프로그램(월 15회) 제공
귀농인의 집	◎ 지원대상: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 사업내용: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집을 제공 ◎ 47개소(한옥 2채, 이동식주택 2채) 지원

문의: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061-380-3441)

日本

일본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과 의미

글 |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김기홍 부소장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농학박사)

청년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대두

일본에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2012년부터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3년까지 만 49세 미만의 농업종사자를 40만 명 양성 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2년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실시요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신규 취농자육성종합대책실시요강(2022년 3월 29일)'을 발표하였다. 목표 달성까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올해, 새 대책에서는 기존의 농업차세대인재육성투자사업의 골자는 유지하되 소폭 개편하고 경영발전자금 사업이라는 영농 초기자금에 대한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취농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였다.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개편과 경영발전지원사업 신설

일본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가장 큰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 (구 청년취농급부금사업)'이다. 차세대를 짊어질 농업인이 되고자 의지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불안정한 소득분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공통적으로 만 49세 이하(기존 만 45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가 대상이며, 전년도 세대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취농 전 연수를 지원하는 '준비형'은 2년간, 취농 직후 경영확립을 위한 '경영개시형'은 5년간,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준비형의 경우 연수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영을 계승하거나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경영개시형의 경우는 경영 개시 후 5년 후에는 농업(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관련 사업인 농가민박, 가공품 제조, 직거래, 농가레스토랑 등도 포함)으로 생계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또한 시정촌 (시·군·읍·면·리)이 정한 '사람농지플랜'에서 핵심적인 경영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발표된 새 대책에서는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취농준비자금 및 경영 개시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취농준비자금은 기존의 준비형과 같고 경영 개시형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그 대신에 취농 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초기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영발전지원사업' 1억 원(최대)이 신설되었다. 경영발전지원사업은 설비나 기계 도입을 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25%에 지방비 25%, 국비 50%를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농가의 여력에 맞게 결정된다. 신규취농자 가운데 경영개시자금으로 3년간 총 4,500 만 원을 받는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경영발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외에도 부모의 영농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영을 계승하는 영농후계자의 경우는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규취농자를 고용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자금(구 농고용사업)'과 신규취농장 연수를 위하여 농장 정비와 기술 지원을 하는 '서포트체제구축사업', 취농 정보 발신을 위한 '농업인재확보추진사업', 농대 및 농고 등을 지원하는 '농업교육고도화사업' 등이 영농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및 지원한다는 기존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새 대책에도 담겨 있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지원실적에 따르면 2019년도 지원 수는 준비형이 1,756명, 경영개시 형은 10,753명으로 총 12,509명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도에 새롭게 채택된 대상자는 준비 형이 885명(30대 33%, 10대 29%, 20대 22%, 40대 15% 순), 경영개시형은 1,915명(30대 47%, 40대 34%, 20대 19%, 10대 0.1%)이었다. 경영개시형의 경우 영농종류별로는 시설채소가 29%로 가장 높았고 노지채소(28%), 과수(14%)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과 연계성 안에서의 청년농업인 정책

국내에서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창농 지원사업)'으로 3년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지역 단위 계획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람농지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마련한 지역에 들어온 청년에 한해 지원금을 준다. 사람농지플랜은 지역의 주민이 모여 우리 지역에 고령화된 농민이 얼마나 있고, 그들의 농지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농지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역민과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 지역 농지 문제를 시작으로, 농업은 물론 농촌의 미래상을 고민하고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선상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의 주체로서 '전국농업위원회네트워크'(구 농업회의소)의 역할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의 주체로 막연히 알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지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과 신규취농자 지원이다. 지역 단위인 시정촌에 농업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모여 광역 단위(도도부현)의 농업회의가 되며, 최종적으로 전국 단위 농업회의소가 된다. 지역의 농업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농지 관리와 신규취농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농지플랜을 통하여 마을 단위 논의들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고자 하면 농업위원회가 1~2년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마을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할 기회를 주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청년에게는 농사지을 농지를 지역의 고령화된 농가로부터 이어받게 하고,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작목으로 생산과 판매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정착할 수 있도록 살 집 등 정주기반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여기에 농사로 소득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취농준비자금과 경영개시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는 물론 청년농업인 등 육성센터, 농지중간관리기구, 농협, 농업위원회,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의 관계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1) 기존의 농업회의소, 2015년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년 3월 3일 법 제88호) 개정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2018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대표 사업인 청창농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의 나이를 일본처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서부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의 지원, 그리고 연수처 확대나 고용에 대한 지원도 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자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이제는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한 전제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농사를 꿈꾸며 지역으로 들어온 청년에게 현장의 농업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탐색 과정을 돕고, 지역에서 농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농업생산과 판매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며 정주기반에 대해서도 지역이 나서준다면 지역 정착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사업이 내려온다면 청년에게도,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청년농업인 정책은 반드시 청년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지역의 농업이 전승되고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이어져 온 지역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계승될 수 있으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마을이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청년농업인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결국 지역을 유지할 농업인력임과 동시에 농촌주민으로서의 청년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과 같이 지역 단위 논의 안에서의 청년농업인 지원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

‘전남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모집 계획



1. 개요

- **쇼핑몰 명:** 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 **모집 기간:** 연중 수시
- **운영장소:** 미국 내 온라인(www.jnmall.us)
- **신청대상:** 전남산 농수산물품(냉동·냉장 제품 포함)
 - 모집 규모 / 300개 제품 이상
- **입점조건**
 - 전남 도내 기업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농수산물품, 가공식품
 - 미국 식품 통관 규정상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품
(육류, 쌀, 옥수수 제품 등 수출 불가)
- **결제방법:** 판매분 정산 또는 FOB¹⁾ 조건



1)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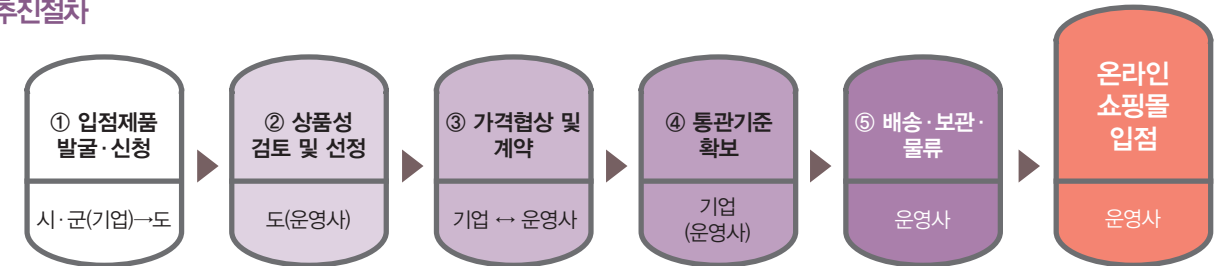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세계적인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 판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우수 농수산식품 수출제품을 발굴하여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전남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모집 계획'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출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농수산물출팀



2. 세부 추진일정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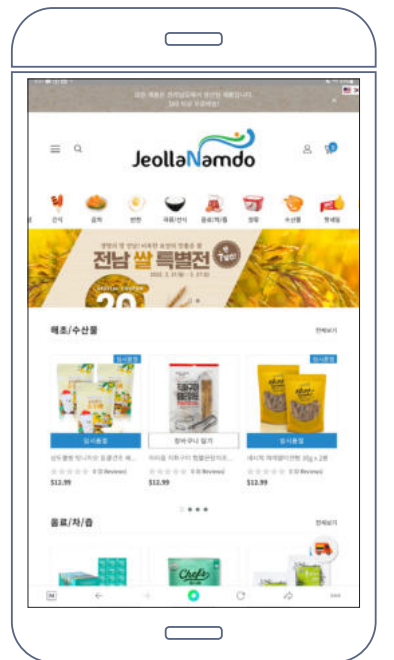
◎ 세부 항목별 절차

- ① 입점제품 발굴 및 신청: 입점 신청서 작성(제품별 각 1매)
- 아마존 진출 희망기업, 남도장터 입점기업 및 수출 의지 강한 기업

- ② 신청제품 상품성 분석 및 선정(도, 운영사)
- 수출기업의 신청 요건, 투자 의지 등 검토
- 제품의 시장성 및 현지 시장 수요 등 상품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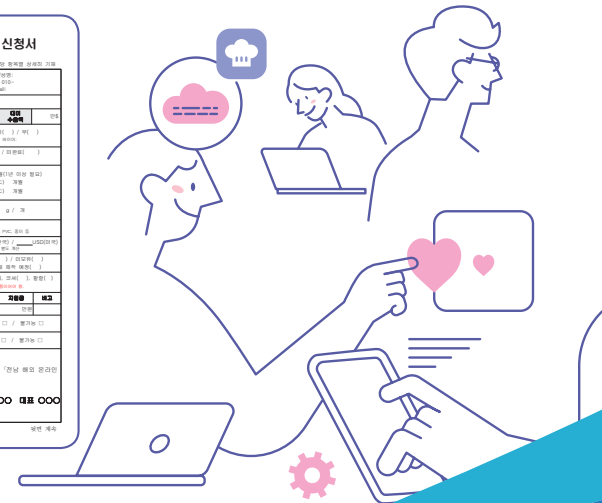
◎ 입점여부 결정: 시장성, 상품성, 경쟁력, 참여 의지 등 종합 판단

- ③ 가격협상 및 계약(기업 ↔ 운영사)
- 가격협상: 생산원가, 물류비, 보관료, 입점수수료 등을 고려
 - 결제방식: 운영사에서 전량 사입(운영사 창고 입고 및 검수 후 1개월 이내 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략품목 등 필요시 기업과 운영사 별도 협의하여 판매분 정산 위탁판매 가능



- ④ 통관기준확보(기업) *운영사 협조
- 영양성분 분석, 리스팅용 이미지 촬영(운영사)
 - 제품 영문 포장 및 디자인 현지화(수출기업 선택)
※美 FDA 공장등록, 수출 고유부호 발급(관세청)
→ 통상당터 활용 지원
 - 리스팅용 상세 설명 자료 작성(수출기업) 및 번역(운영사)

⑤ 배송·보관·물류: 국제운송료 70% 지원

[illegible]



溫택트 상생장터

전라남도의 자연에서 길러낸 건강하고 정직한 먹을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곳.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쇼핑몰의 이용방법과 입점 및 판매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완도군이숍 www.wandofood.go.kr

완도군이숍은 우수한 완도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난 2004년 3월 개설 후 올해로 19년째인 완도군이숍에는 청정바다에서 자란 완도 대표 수산물인 활전복, 순살전복, 전복 가공품뿐만 아니라 김·미역·다시마·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 유자차, 모링가차, 황칠즙 등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다.



◎이용 안내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및 일정 양식의 가입항목 작성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한다. 가입 즉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위한 이벤트 및 각종 할인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입점 신청 방법

- 완도군이숍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 및 상품
 - 군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 운영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
 -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
- ※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 포함
- 완도군이숍에 입점하고자 한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
 - 입점협약서, 입점신청서, 그 밖의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 zkaenddl@naver.com, 061-550-5662



장흥몰 www.okjmall.com

장흥몰은 장흥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다양한 농·수·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정식 개장했으며, 중간유통단계가 없어 시중보다 5~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장흥 한우삼합, 유기농 표고버섯, 장흥산 키조개, 장흥 무산김, 청태전, 상황버섯 등 향토색 짙은 다양한 제품이 입점해 있다.



◎이용 안내

- 회원가입 시 기본 가입 축하금으로 2,0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구매 시 상품별로 적용된 마일리지는 10,000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100점은 현금 100원과 동일하다.
-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쇼핑백에 담는다. → 회원 ID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 주문을 한다. → 주문서를 작성한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한다. → 주문 성공 화면이 뜨면 주문번호를 확인한다. (비회원 주문인 경우 주문번호와 승인번호를 메모해둔다.)

◎입점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장흥몰에 문의하면 입점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 장흥몰 유선전화로 직접 문의한다.
 - 장흥몰 메일로 입점에 대한 의사를 밝힌다.
- 문의: namdo0741@naver.com, 061-864-0742





더위 방지 및 자외선 차단과 근골격계 질환(허리·무릎) 예방법

농작업 현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더위나 자외선 등이 원인이 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지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더위 방지 및
자외선 차단과 근골격계 질환(허리·무릎)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자외선 차단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사람의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작용을 하며,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다.

자외선의 영향

- 자외선의 긍정적 영향: 살균작용, 항구루병¹⁾ 작용
- 자외선에 의한 과도한 노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 피부 그을림, 홍반, 일광화상, 피부노화, 백내장, 피부암 등
- 농작업자는 일광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자외선 차단이 필요

1. 구루병은 뼈의 발육이 좋지 못하여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뼈의 변형으로 안짱다리 등의 성장 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며 비타민D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자외선 차단 지침

-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조사량이 최대가 되므로, 일광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
- 챙이 넓은 모자, 긴 팔 셔츠(촉촉하게 짠 헐렁한 옷), 긴 바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옷에 가려지지 않는 모든 피부 면에 바른다. 미국
암 학회에서는 **일광차단지수(SPF)가 15 이상인** 것을 권하고 있다. 효과를
보려면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며, 피부에 흡착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햇볕에
노출되기 최소 30분 전에 바른다.**
- 흐린 날씨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겨울 스키장이나 눈이 많이 내린 날에
자외선 반사가 많으며, 유리창으로도 일부 자외선이 통과되고 햇빛은 30cm
정도 두께의 물도 통과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인공적인 자외선이 나오는 태양등과 선풍실을 피한다.
- 자외선 지수를 눈여겨본다. 해당 지역에 내려진 그날의 자외선 지수를 확인
하여, 지수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보호를 강화한다.

※더운 날 건강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20분 간격)으로 자주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마셔 주세요.
 -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바람이 잘 통하는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
 -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휴식
취하기
-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
활동 강도 조절하기

더위 방지

출처 |
농촌진흥청 '이달의 농업기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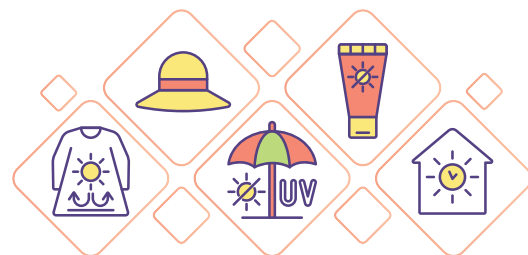
농업인은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나 야외 등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작물 생육과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
인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증상

-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 기온 16~19℃, 습도 40~70%의 약간 기류가 있는 상태
- **일사병의 증상:** 얼굴이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나며, 몽롱하고 구토와 두통, 무력감이 느껴진다.

방서 지침

-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수건, 긴팔 순면 의복 착용
- 햇빛 가리개,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팬 환기 시스템 이용
- 작업 시 물을 많이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염분을 섭취
- 음주는 탈수 현상을 가중하므로 삼가
- 냉각 젤이나 얼음이 들어 있는 냉각 조끼(Cooling Vest) 등의 냉각도구 착용
- 힘든 작업은 되도록 시원한 시간대(아침·저녁)에 실시
- 그늘이나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주 짧은 휴식 시행



근골격계 질환 (허리·무릎) 예방법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할 때 근육, 신경 등에 통증을 동반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이나 규칙적인 자세변환, 운동과 함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골격계 질환 원인

- **부적절한 작업 자세**
 - 무릎을 굽히거나 찌그리는 자세로 작업
 -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 **과도한 힘 필요작업(중량물 취급)**
 -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 **접촉 스트레스 발생작업**
 - 무릎을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 **진동공구 취급작업**
 - 착암기, 연삭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취급작업
- **반복적인 작업**
 - 허리와 무릎을 계속 반복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업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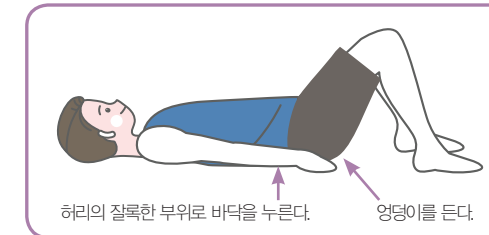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10대 수칙’

- ①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는 허리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 ② 어깨 위 높이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 ③ 물건을 운반할 때는 이동대차를 사용한다.
- ④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둔다.
- ⑤ 작업 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맞춘다.
- ⑥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 ⑦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받침대를 사용한다.
- ⑧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한다.
- ⑨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
- ⑩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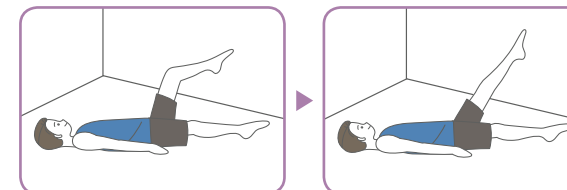
허리통증 예방 운동법(아침·저녁 1회 20회씩 반복)

발을 바닥에 편평하게 대고 무릎을 구부린 채 허리를 대고 누워 허리의 잘록한 부위로 바닥을 누른다. 골반을 위로 기울여서 바닥에서 약간 떨어지게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긴장시킨다. 이렇게 6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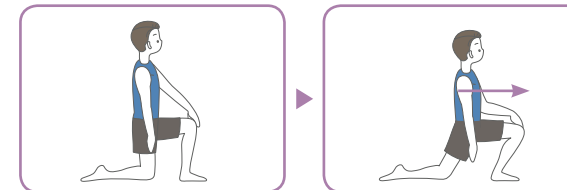
1. 슬관근 스트레칭

슬관근이란 무릎 뒤쪽 근육을 말한다. 슬관근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요통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슬관근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벽에 발을 걸쳐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여 슬관근을 부드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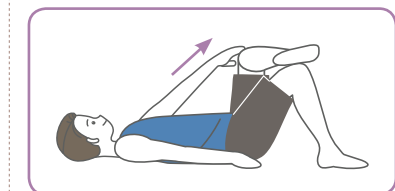
2. 고관절 굴곡근육 스트레칭

무릎을 굽히고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무릎을 대고 앉은 쪽 고관절의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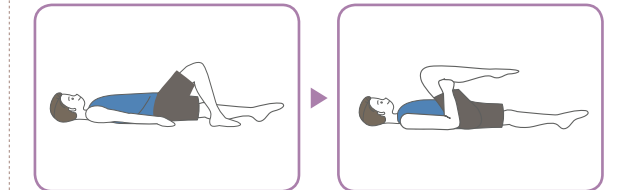
3. 고관절 회전근육 스트레칭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줌으로써 고관절을 회전시키는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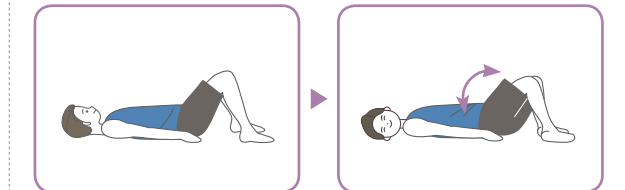
4. 고관절 신전근육 스트레칭

무릎을 가슴으로 잡아당김으로써 고관절 뒤쪽의 근육을 스트레칭한다.



5. 허리근육 스트레칭

허리를 좌우로 돌려 허리근육을 스트레칭한다.



전라남도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라남도가 더 좋게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전라남도 농림·축산 분야의
 주요 제도와 시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 식량원예과,**
축산정책과에 문의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시기를 앞당겨
 10~11월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_ 2022년 1월 1일)		
주요 내용	종전	변경
신청 시기	10~11월	7~9월
농가별 지급	12월~익년 1월	10~11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①— ‘벼 경영안정대책비’란 무엇인가요?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
②—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라남도 도내에 주소(2022. 1. 1. 기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농업인, 7~9월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문의 식량원예과 식량정책팀 (061-286-6471)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_ 2022년 1월 1일)		
주요 내용	종전	변경
사업 기간 연장	1년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
지원액 상향	없음	유기축산물인증 축사 설치 시 지원액 10% 상향
지원제외 완화	없음	가축 질병 예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학교 졸업자 중에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 80%, 자부담 20%
②—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축종별 지원 단가에 축산업 허가·등록 면적을 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융자금: 한우·젖소 11억 원, 돼지 55억 원, 산란계 81억 원, 육계 40억 원, 육용 오리 50억 원 등
③—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관련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축사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축산업 허가증, 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문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061-286-6524)



농업인 교육

2022년 농업인 교육 신청을 안내합니다. 교육 신청은 과정보별 교육개시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거주 주소지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100% 시·군 추천 선발, 개인별 인터넷 신청 불가). 교육 신청 자격은 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① 약용작물			② 농작업기계 전기용접(2기)		
10	11	12	13	14	15	16
		③ 귀농·귀촌인 전통주 제조		④ 카워		
17	18	19	20	21	22	23
	⑤ 기계화영농사(3기)					
24/31	25	26	27	28	29	30
	⑥ 수출 농업인 전문 교육					
		⑦ 스마트폰 촬영 및 동영상 편집				



7월



① 약용작물

접수기간: 6월 7일 ~ 20일
교육기간: 7월 4일 ~ 6일(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1순위 도내 약용작물재배 농업인, 2순위 도내 농업인, 총 25명
교육내용: 국내외 약용작물 현황과 발전 방향, 약용작물을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 선도농가 현장학습
교육문의: 061-330-2724

② 농작업기계 전기용접(2기)

접수기간: 6월 7일 ~ 22일
교육기간: 7월 7일 ~ 8일(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내용: 트레일러 전기용접 기초이론, 전기용접 편철 접합 실습 및 시뮬레이터 교육, 장기 보관요령
교육문의: 061-330-2732

③ 귀농·귀촌인 전통주 제조

접수기간: 6월 12일 ~ 27일
교육기간: 7월 12일 ~ 14일(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인
교육내용: 전통주 사업 지원 안내 등, 술 전처리 이론 및 실습, 발효제 누룩(곡자) 띄우기, 우수 선도농가 벤치마킹
교육문의: 061-330-2736

④ 카워

접수기간: 6월 14일 ~ 27일
교육기간: 7월 14일 ~ 15일(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1순위 도내 카워재배 농업인, 2순위 도내 농업인, 총 25명
교육내용: 카워 수급 동향 및 소비 전망, 카워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카워 정지전정 기술, 선도농가 현장학습
교육문의: 061-330-2724

⑤ 기계화영농사(3기)

접수기간: 6월 18일 ~ 7월 3일
교육기간: 7월 18일 ~ 29일(교육시간 70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내용: 기종별 이론 교육, 점검·정비 및 시뮬레이터 실습, 운전 조작 실습, 교통안전, 현지견학, 이론·실습평가
교육문의: 061-330-2732

⑥ 수출 농업인 전문 교육

접수기간: 6월 27일 ~ 7월 11일
교육기간: 7월 25일 ~ 26일(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총 25명
교육내용: 수출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사례, 수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무역 실무, 선도농가 현장학습
교육문의: 061-330-2724

⑦ 스마트폰 촬영 및 동영상 편집

접수기간: 6월 26일 ~ 7월 11일
교육기간: 7월 26일 ~ 28일(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내용: 스마트폰 사진 촬영기법, 동영상 촬영하기,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편집, 동영상 프로그램 사용, 제품 홍보영상 만들기
교육문의: 061-330-2736

8월



① 프레젠테이션 활용 능력 배양

접수기간: 7월 24일 ~ 8월 3일
교육기간: 8월 23일 ~ 25일(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내용: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 구성, 파워포인트 디자인과 기능,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스킬, 상품 소개서 등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교육문의: 061-330-2736

② SNS활용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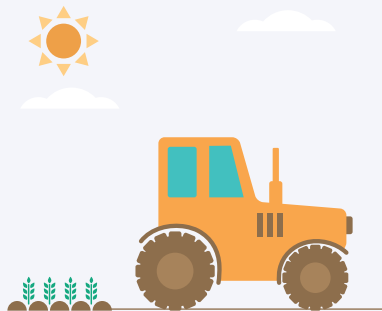
접수기간: 7월 31일 ~ 8월 15일
교육기간: 8월 30일 ~ 9월 1일(교육시간 21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내용: 스마트 미디어 트렌드, 페이스북 활용하기, 인스타그램 활용하기, 카카오톡스토리와 밴드 활용하기, SNS 홍보하기
교육문의: 061-330-2736

③ 여성 농업기계(2기)

접수기간: 8월 1일 ~ 16일
교육기간: 8월 30일 ~ 31일(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여성 농업인
교육내용: 밭작물 현황 및 향후 방향, 트랙터 시뮬레이터·콤바인·경운기 교육, 안전사고 예방, 농업기계 운전조작 및 응급 점검·정비, 현장교육
교육문의: 061-330-2732

④ 조미채소(양파·마늘)

접수기간: 8월 1일 ~ 16일
교육기간: 9월 1일 ~ 2일(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1순위 도내 조미채소재배 농업인, 2순위 도내 농업인, 총 25명
교육내용: 조미채소 수급 동향 및 소비 전망, 양파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마늘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조미채소 재배 토양관리
교육문의: 061-330-2724





전라남도농업기술원-전남도립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도립대학교와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월 6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및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6차 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협약 내용은 '6차 융복합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2급 치유농업사 인력양성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체계 유지', '전남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손장환 팀장(061-330-2571)



무화과 '민·산·관·학 협의체' 본격 가동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4월 5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유통·수출 업체 및 전남도 관계자를 비롯한 18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무화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민·산·관·학 협의체' 창립식을 개최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지역 대학, 농민단체, 농협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재배 품질향상 가공 기능성 발굴, 수출 경쟁력 증진 등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과수연구소 이소미 연구사(061-880-8013)



전남 흑염소 산업 발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흑염소고기의 품질개선과 소, 돼지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 지원, 전남 흑염소 산학연합체'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흑염소 브랜드화 연구 57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신제품 육종에서 식품 개발까지 종합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남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문의 | 축산연구소 최영선 팀장(061-286-5870)

영농형 태양광 산업 해외진출 견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주)엔벨롭스와 '영농형 태양광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KOICA ODA) 사업의 일환인 피지 영농형 태양광 시설 구축과 농작물 실증사업 등 협력 강화와 기술지원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농업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수여국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외소득 모델 제시로 농가 소득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식량작물연구소 윤창용 팀장(061-330-2531)



기능성 상추 '흑하랑' 수면차로 미국 수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상추 '흑하랑'을 이용하여 만든 수면차 '흑하랑굿드림티'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영농조합법인 나비팜(대표 김철환), (주)엘리펀(대표 조용국), Newly Rising Esse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5월부터 흑하랑 상추의 불면증 천연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하여 레시피를 보완하고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의 |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061-330-2542)



싱가포르 e-커머스 업체와 수출확대 업무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내 K-FOOD 인기에 따른 전남 지역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e-커머스 업체인 '쏘굿케이(SoGoo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전남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수입확대', '수출유망 농식품 경영체 정보 제공' 등이며, 협약에 이어 우수 수출 농식품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해남, 순천, 담양 등 10개소에서 진행하였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구례 가공식품 미국 수출길 올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주)꽃매USA를 통하여 구례 자리산표아골식품(대표 김미선)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였다. 수출한 가공품은 고로쇠 시래기된장국과 고사리, 부지깥이, 취나물, 토란대를 원료로 만든 3분 나물 밀키트 등 10박스(3,240백)분량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그동안 도에서 생산한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확대 지역특화 가공식품 마케팅보도 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보성 유기농 녹차, 독일 첫 수출길 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보성에서 생산한 유기농 녹차를 차 가공식품 생산·수출 전문업체인 월드티(주)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독일에 처음 수출하였다. 이번 수출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에서 생산한 차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차 가공제품의 품질평가 및 컨설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보성군은 보성 녹차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차밭과 녹차가공공장에 대한 유럽(EU), 미국(USDA), 일본(JAS)의 국제유기인증 을 이미 획득하였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김은혜 연구사(061-850-2704)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그린아리' 등 서울 시민 '찬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도 육성 수국의 우수성과 전남 강진산 절화수국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국 신품종 '그린아리' 등 4개 품종과 개발 단계인 20여 계통 210점을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에서 전시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수국을 전남 대표 화훼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모닝스타, 화이트아리 등 우수 품종을 개발해 화훼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 원예연구소 유영 연구사(061-330-2543)



아열대과수 '레몬' 소득화 연구 본격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유망 아열대과수로 주목받는 '레몬' 소득화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내 레몬 재배면적은 14.2ha, 연간 생산량은 약 340톤 정도이며 이 중 전남은 5%로 0.7ha에서 재배 중이다. 국내산 레몬의 판매가는 외국산에 비해 2배 정도 높지만, 신선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수연구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남 레몬 재배 소득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과수연구소 이주영 연구사(061-880-8020)



전남쌀 신품종 '강대찬' 육성 업무협력 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쌀 신품종 '강대찬'을 전남지역의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고품질 강대찬 벼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기술 습득 및 교육',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위한 원료곡 종자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장 실증 등 육성기간을 거쳐 2021년 품종보호출원하였다. 이어 올 하반기에 품종등록될 예정이다.

문의 |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연구사(061-330-2523)



노루궁뎅이버섯 신품종 '노루 3호' 개발 보급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기능성 웰빙 버섯인 노루궁뎅이버섯 신품종 개발에 나서 '노루 1·2호'에 이어 '노루 3호'를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하고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노루 3호'는 기존의 노루궁뎅이버섯보다 쓴맛과 향이 약하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육질이 치밀하고 자실체가 단단하여 수량이 높고 베타글루칸 함량(23.9)도 높아 식용은 물론 약용버섯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식량작물연구소 김다미 연구사(061-330-2536)



'홍화' 특허기술로 다양한 가공제품 선보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인 '홍화'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목으로 씨는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특히 홍화씨 기름 성분(공액리놀레산)은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골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작물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홍화의순도 향산화 효능이 있음을 밝혀 내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윤석 연구사(061-330-2512)



육성 풋고추 신품종, '남초' 농가 보급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매운맛이 약하고, 맛과 향이 좋은 오이맛 고추의 특성을 살려 풋고추 신품종인 '남초'를 개발하였다. 속살이 두꺼워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좋은 '남초'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량도 40 정도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품종 실증재배를 통해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대형백화점에 꾸준히 납품하여 소비자 생산 농가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원예연구소 박민영 연구사(061-330-2546)

전남 농업

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을 읽은 소감이나
앞으로 알고 싶은 농업정보 등을 적어
6월 3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독자엽서를 보내신 분 중 30명을 선정해
'백향과청·잼 세트', 또는 '양파장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독자 선물



15명
함평군 '이리네 농장'
백향과청·잼 세트



15명
무안군 '초록당'
양파장 세트

참여 방법



독자엽서 뒷면의
모든 문항에 표시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7·8월호 독자마당

퀴즈 당첨자

3·4월호 퀴즈 당첨자

강진군 '뷰티팜' 수국 다발 / 30명

안*규(강진군 강진읍), 김*은(파주시 책향기로), 이*용(신안군
지도읍), 장*희(영광군 백수읍), 설*(보성군 벌교읍), 이*자(광주시
광산구), 김*석(나주시 남평읍), 이*은(완도군 완도읍), 임*경
(완도군 완도읍), 이*성(성남시 판교로), 윤*주(용인시 기흥구),
이*주(광주시 남구), 이*균(광양시 광양읍), 윤*순(광주시 남구),
오*윤(용인시 기흥구), 이*정(광주시 북구), 김*은(광주시 광산구),
윤*자(순천시 서면), 노*채(광주시 북구), 윤*순(서울시 서대문구),
박*수(진도군 진도읍), 정*치(고흥군 포두면), 이*옥(영광군
묘량면), 곽*정(영암군 서호면), 심*섭(장성군 황룡면), 양*진
(영암군 학산면), 장*준(화순군 동면), 박*안(해남군 계곡면),
박*미(화순군 사평면), 이*혜(광양시 옥곡면)

Quiz

독자 퀴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 추출 천연 정유와 ○○ 분말을 이용하여
보디클렌저를 개발했는데요, 진도지역의 특화작목인 ○○은 무엇일까요?
(44페이지 '농UP테크' 참조)

❶ 보리 ❷ 강황 ❸ 매실 ❹ 토마토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지도 등의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